



예일부채춤팀의 공연

한수연 집사



2013년 과테말라 미션을 다녀와서

이번 2013년 과테말라 선교는 모두가 처음 가는 곳이라서 우리 선교팀은 두 달 전부터 기도와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또 한가지 이번 선교의 특징은 10대부터 60대의 어르신까지 총 55명이라는 대규모 선교팀이 가는 것이다. 안전과 비상망을 철저히 점검하고 또 점검하였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선교 가는 날. 7월 29일 새벽 미명을 깨고 플러싱 팀과 베이사이드 팀 그리고 롱아일랜드 팀이 라과디아 공항에 모였다. 이번 선교는 출국하는 공항에서부터 사탄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비행기 예약을 다 점검하고 나왔건만 막상 공항에서는 집사님 한 분이 잘못 예약했다고 같이 가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참으로 답답하고 시험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는 비행기를 고장 나게 하시고 출발을 6시간 30분 동안 지연시켜 주셔서 서류문제가 있던 집사님과 함께 합류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다. 비행시간과 버스시간까지 합해 26시간 만에 드디어 우리는 목적지인 과테말라 선교지에 도착하였다.

4시간의 꿀맛 같은 취침을 하고 첫 날 사역지인 깨잘데낭고 교회에서 모여 선교일정을 시작하였다. 성경공부, 의료, 한방, 안경, 미용과 중보기도 팀으로 나누어서 일사분란하게 각자의 맡은 부분에서 이제까지 준비하고 배운 모든 실력을 이곳 과테말라 원주민들에게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섬기니 여기저기에서 할렐루야 아멘의 역사가 넘쳐나는 것을 모든 선교대원들이 체험하기 시작하였다. 정수영 장로님이 이끄는 검안 팀에서는 눈 먼 봉사가 다시 세상을 보게 되는 기적을, 강성식 집사님이 이끄는 한방 팀에서는 수십 년 동안 펴지 못했던 허리를 펴게 하는 기적을, 조남이 예일 미용실 원장이 이끄는 미용 팀에서는 머리를 다듬다가 원주민들이 이와 벼룩을 폭포수같이 우리 대원들에게 베푸시는 역사를, 김근태 장로님의 예일치과 팀에서는 시원하게 이빨을 뽑고 씨익 웃으면서 나오는 어린이들과 어르신들. 김 장로님은 뉴욕에서의 일 년치 해야 할 이빨 뽑는 일을 이곳에서 다했다고 했다. 송광수 장로님이 이끄는 중보기도 팀과 알빈 전도사님의 CCM과 판토마임 팀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재미있는 판토마임으로 원주민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역사를 보게 하였다. 그리고 이번 선교에 정말로 어려운 섭외를 하여 선교에 동참한 예일 부채춤팀의 하늘에서

선교



스테이션의 차레를 기다리는 현지인들



사역별 접수를 받으며



한방 사역



Youth Group 찬양



대통령궁 앞에서



미용 사역

내려온 천사들의 부채춤은 낮과 밤이 따로 없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총 12번의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 지도자이신 김종훈 담임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교현지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여주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55명의 선교단 모두가 몸으로 체험하는 귀한 선교를 하게 되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를 이번 예일 부채춤팀의 로드매니저로 사용해주셔서 일곱 명의 부채춤 아줌마들의 수다와 고충을 함께하고 울고 웃고 큰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부채춤 단원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린다. 공연 3일째부터 부채춤 큰 언니인 김기영 집사님이 전에 다친 발목이 부어 도저히 공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선교팀의 기도와 강집사님의 기적의 침술로 하루에 4번씩의 공연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보았고 부채춤 공연을 위해서 양쪽 도로를 막고 20여분 동안 큰 도로에서 했던 일, 1000여 명이 모이는 큰 교회의 수요 예배에 초대를 받아 그 현지 교인들에게 부채춤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 마지막 날 대통령 궁 앞에서 부채춤 공연이 끝나고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 한복을 입고 모인 군중 모두와 덩실덩실 어울려 함께 춤을 추던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찌 그리 좋던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게 사랑하는 아들 Peter와 함께 선교사역을 하게 하신 크나큰 축복을 주셔서 저자신에게는 참으로 잊지 못할 큰 은혜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다음 선교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다녀왔으면 하고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기도를 드리면서 2013년 과테말라 선교대회 보고를 마치고자 한다. 예일선교 팀 파이팅. 아하자!



필리핀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임정현 집사



필리핀 단기선교를 마치고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택하셔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401전도 훈련까지 잘 마치게 해주셔서 뜨거운 전도의 열정으로 말씀 증거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교는 기도와 후원 헌금만 하고 시간이나 직장, 사업에 여유 있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적극 권면해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윤희주 장로님과 담임목사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바자회를 통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교비용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새벽부터 선교회별로 애쓰신 교인들의 수고와 기도가 있었으므로 제 편의만 생각하고 긴 일정과 선교비가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기에는 많이 부끄러워서 개인적으로 과부의 마지막 남은 동전 한 닢을 하나님께 바치는 생각으로 선교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들로 보여주셨습니다.

뉴욕을 떠나 민다나오에 도착해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까지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였기 때문입니다. 긴 비행 여정을 마치고 공항에서 나와 보니 숨이 막힐 듯 무더운 날씨라는 말과는 좀 차이가 있는 비 온 뒤의 청명한 날씨여서 기분 좋게 선교사님 부부의 인도에 따라 각자 밴을 타고 2시간 후 처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방 배정 후에 짐 가방만 내려놓고 바로 마띠 하이스쿨에서 준비한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원주민과 학생들 그들이 준비한 밴드와 여러 순서가 감동 그 자체였고 그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찬양을 해달라는 선교사님의 즉흥적이고도 파김치가 되어버린 내 컨디션엔 청천벽력과도 같은 요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그들이 보여준 열광은 제 평생에 어느 큰 음악무대보다 훨씬 인상적이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번 장년 선교대원 22명중 처음 선교에 동참한 분이 저를 포함에 일곱분에도 불구하고 첫날 안경사역에서 경험 부족으로 힘들었던 것 외에는 사역 내내 서로의 생각의 차이 체력의 저하 설사와 고열로 사역에 소홀해진 사람 뭇까지



필리핀 단기선교 대원들

감당해야하는 부담감 등으로 짜증나고 힘들어서 초심을 잃어버릴 뻔했던 순간들도 아침 큐티와 저녁 저널을 통해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자신을 조율할 수 있었기에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선 선교의 연장이었음을 또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 귀한 기회였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통해 개인적으로 주신 또 하나의 큰 은혜는 찬양하는 자의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팔수들을 가장 앞에 세우셨듯이 찬양의 힘은 참으로 어둠의 공중 권세에 맞서 싸우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역지는 마띠교도소였습니다. 교도소 사역 전달 고열과 오한 설사가 극도로 심해져 이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찬양을 막으려는 그 힘에 눌리고 싶지 않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평소와는 달리 두 곡을 다 하겠다고 목사님과 선교사님께 허락을 받아 마이크를 잡고 나니 나도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확실한 느낌에 최선을 다해 재소자들 앞에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저만이 알 수 있는 기적 같은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니 웬 제복 입은 사람과 트럭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그날 마띠교도소 상관이 다른 교도소에 우리 교회의 사역을 소개했고 재소자가 400여명이나 되는 더 큰 규모의 교도소 관계자가 그곳에도 같은 사역을 해달라고 선교사님께 간청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재소자 중에는 한국 분도 억울한 누명으로 갇혀있다고 하시면서 당장 사역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방문은 해보겠노라고 약속했다 한다.

끝으로 약취가 진동하고 원두막인지 사람 사는 집인지 분간하기 힘든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그곳 학생들의 참담함을 보면서 아무 소망도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나의 어린 시절을 보낸 내 자신이 그곳에서 재조명되었고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민석 (청년부)

지킴 세계한인선교대회를 다녀와서

2011년 12월 26일, 뉴욕 주 Rochester에 GKYM 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달려갔다. 대회장소에 도착하여, 레지스터의 기술적 문제로 호텔 로비에서 3시간 넘게 기다렸고, 결국 숙소에 짐을 풀지도 못한 채 첫 예배에 참석해야만 했다. 장시간의 운전과 기다림에 내 몸은 녹초가 되었다. 하지만, 찬양을 시작하고 두 번째 찬양을 할 때에, 피곤했던 몸이 일으켜지고, 이름 모를 힘이 내 안에 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미국전역에서 모인 청년들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성령님이 나를 성령충만 함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사실, 난 GKYM의 대회 성격에 대해 잘 모르고 참석하였다. 그저 청년들의 부흥집회 정도로 여기고 그곳으로 향했다. GKYM은 전 세계에 3,300개의 미 전도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육성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선교대회이다. 지금까지 나에게 '선교'란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이라 여겼고, 선교는 목사님,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그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만이 나의 신앙생활로 안주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나에게 이 GKYM은 선교에 대한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다. 선교는 누구에게나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선교이고, 또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것도 선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대회기간 동안,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말씀이 나를 깨웠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나의 눈과 귀를 뜨게 하였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코란이 아니면 칼이기에 기독교 선교가 법으로 금지되어있고, 지하교회에서 비밀리에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이슬람 국가의 특성상 기독교 선교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처형이 되는 위험한 곳에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 선교사님의 동료께서 얼마 전에 그 곳에서 순교를 하셨다고 한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지는 못하지만, 선교사가 순교를 하면 그 나라에서 그 무덤에 작은 십자가를 세우도록 허락을 해준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그 나라에 작은 십자가를 세우는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다. 이 간증을 들은 후 선교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저렇게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난 도대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 하는 생각에 부족했던 내 자신을 회개하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달라고 기도를 하였다.

대회 둘째 날, 캐나다의 큰 빛 교회 담임목사님이신 임현수 목사님의 설교시간에 난 다시 내 안의 성령님께서 날 움직이심을 느꼈다. 임현수 목사님께서서는 북한선교를 하시는 분이로서, 특히 물질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현재, 북한에도 여러 개의 지하교회가 존재하며, 예측하기로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한다. 북한 역시 체제상 기독교가 금지되어 있지만 그곳에서도 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들이 있다는 말씀에 다시 한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목사님께서 북한에 방문하셔서 호텔에 묵고 계시면, 어떻게 알고서 북한주민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해달라고 하며, 안수받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이렇게 갈급하고 절실한 신앙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더불어, 설교 중에 북한주민들의 실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셨고, 앞으로 통일 한국이 멀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며, 통일이 되면 북한땅에 복음이 파도처럼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예전부터 북한에 관심이 많아 북한관련 뉴스나 기사를 빠짐없이 보던 나는 더더욱 집중하여 설교를 들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이 내가 할 일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설교를 다 들은 후 나는 다시 기도 드렸고,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다짐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난 북한선교를 위해 일 할 것이라고.. 오후가 되어, 오전에 받았던 나의 북한선교에 대한 비전은 더욱 구체화 되었다. 선택강좌를 통하여, 워싱턴에서 성공한 사업가로서 많은 선교후원을 하시는 어느 장로님의 강좌를 듣고, 또한 저녁집회를 통하여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나는 기도했다. ‘하루빨리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어, 예수님을 모르는 북한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구주임을 시인하여, 그들이 변화 받고 구원받기를..’, 또한 ‘훗날 내가 북한땅에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겠노라고..’

약 125년 전, 20대의 청년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고, 나 자신 또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선교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난 이렇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비전을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다. 이번 GKYM 선교대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비전을 받아 들고 돌아오게 되었다. 나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시어, 나를 쓰시려고 하는 시간이 곧 멀지 않았음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나는 북한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 갈 것이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자 하나님께서 날 지으신 이유이기에..

그리스도의 청년 강민석

Work Camp Testimony

This year was my first work camp. Before I went to work camp, I was thinking of not going. I felt like work camp wasn't going to help me get closer to God and I feel didn't confident about myself. But, when I really thought about it, I decided to give it a shot.

The theme of this year's work camp is "What do you stand for?" Once I saw that theme, I didn't understand it. Once I meet my crew, I knew that maybe it wasn't going to be bad as I thought. I had a double crew and it was really fun. We had ice cream, went to the lake, and had a fun time to laugh and joke around. But when there was service, I didn't bother listening because I wasn't focused on God. I only cared about making new friends and having fun. But on Tuesday, there was an evening worship. When I got a paper clip, the director of the work camp shared what to do with it. We had to make a symbol of something you want from God out of the paperclip. Then when we made that symbol, you had a choice of asking that symbol from God or not. If you did, you put it in the cross. My symbol was to stay strong. While I was making it, I asked myself if I deserve to put it in the cross. When I thought about it, I decided not to put it in the cross. I wasn't ready to put it in yet. As I prayed to God though, I was great full to be here at work camp and get closer to him. After that, I decided to put my paperclip on the cross. When I met my crew, I heard we had to skirt the resident's house. I thought that it was not going to be fun at all. But as I was skirting for my residents house,

I saw a lot of God's sightings. With that sighting, I would be blown to see what God has done for me. When it was cry night, we had a bandage which represents to let go of all the bad things you did or what happened. When I looked at my bandage, I flashed and saw all the sins I committed. I was upset to see what I have done to my friends, family, and the people around me. But, I peeled off my bandage and put it on the cross. These made me realize that God would always stay by my side and help me through the struggles I take or make. One of the main topics that helped me throughout the most was "Why do you Doubt?" Doubt happens when you forget what you know. That was one the way to think about it. To be honest, sometimes I had a struggle in doubt in God. But, ever since I came to work camp, I became strong and confident about myself and knowing that God knows me and understand me the way I am. Having doubt is normal. Everyone has doubt. While I was struggling, a friend of mine helped me with the struggle I had in me. That person gave me a many good advices and helped me. Without that person, I wouldn't have been able to reach out to God. When it was the 3rd to last day of work camp, my crew was almost finished skirting the house. I was upset because I was going to miss my resident, the residents dog Chance, and mostly my new friends I made. I enjoyed fixing my residents house and making new friends that understood me. I am glad that I came to work camp this year. I experienced a life changing spiritual growth in my life. I stand for getting to know God every day and getting closer to him. I have amazing new friends and I had a chance to know that God will help me where I struggle the most by praying and understanding His words. I cannot wait to go to work camp next year to fulfill my life to God first. So, I ask you this question,

"What do you stand for?"

Work Camp Testimony

Hello Everyone! So I didn't really know the real meaning of testimony so I looked it up. Testimony, according to Merriam-Webster, means firsthand authentication of a fact : evidence, an open acknowledgement, and a public profession of religious experience. In order for this testimony to make sense I have to go all the way to the start of all this. So,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In the beginning, I was forced to go on the missions trip. Three reasons made me go, why not? SWAG YOLO, mama Bae, and because so many of my hyungs were going and I wanted to be with them for one last time before they go off to college and I don't see them much. To tell you the truth, I was in a terrible spot in my faith. I doubted God's very existence, but I didn't tell anyone because I didn't want them to bother me about it. I came to church just because my mom forced me to. If my mom didn't make me I probably wouldn't have come. But then mission practices begin... and oh man. The work was crazy. Balloon animals, Las Maldades Cometitas, fasting... (laughter), saebaegedo... (laughter), and cleaning the church. I believed in God but I thought to myself, (I'm really lazy) I can always just resume my walk with God later on. He'll still accept me then just like he would anyone. But now that I had to go to missions, I had to revisit God again. It was like he was my toothbrush. I only go to Him once in a while. I was actually terrified when I found out I had to go to missions. I was so scared because I was afraid that someone's salvation lies in my hands, someone's ticket to heaven. When I kept thinking about that I realized I had to go to God again. I had to ask him for help. I decided that workcamp is the time and place to just connect with God again.

Work camp was the first sign that I noticed from God. The theme of the week was really relatable for me. Why do you doubt? Why are you afraid? Do you want to get well? These questions hit me hard. I realized that I was just being lazy and scared to get to know God. That was when my whole perspective changed. Everyone in my crew at work camp had broken families and their own problems but still believed in God and trusted in him. And then there I was... a bum thinking only about himself when I don't even have any problems. It went from a nonbeliever, seeing things as coincidences, thinking about the secular things, to a Christian, seeing things as signs from God, looking at things and thinking if it's acceptable to God, and finally I thought about how I would feel if I was God. Of course I will never be able to understand God but thinking about how I kept turning from him and refusing to get to know him hurt me. God sent his only son down for everyone. Now I was mega scared for missions. I was so afraid that I won't be able to do God's work the way he wants it to be done. I felt like a deadweight when I finally got to Guatemala. I didn't know any Spanish except for a packet I memorized, I wasn't in Everything or in body worship. I really was worth nothing to the missions team. All I had was a mindset of I have to do anything I can possibly do to help this missions team. So I did, I lifted things, did VBS songs with as much passion as I could, and tried to make sure everyone was feeling well. This thought of being a deadweight changed completely on the last day. The last day jundosanim asked me to help encourage people to start praising God. (Describe the presidential square). I ran to the middle and started to clap. After we prayed for the people who were willing to accept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or wanted to get well. I was praying for a man who had a stomach problem and a man with troubles with his heart or with his life. I don't know because yo no hablo espanyol. That's when I was terrified. I thought to myself, am I even good enough to be praying to God to enter into someone's life, am I even qualified to pray to try and heal someone? But that's when I realized: I am not the one healing him, I'm not the one bringing him to God. God is the one that is going to heal him, God is the one bringing him to God... weird. (Motorcycle)(plane ticket) Everything that has happened is God's work and could've only happened through God. Being at missions truly shows you and makes you focus on God and his work and power. Gloria a Dios. Missions 2014!!!



기본이 안되었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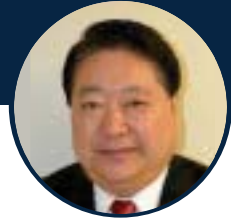
“기본이 안 되었써어~” 누군가 나에게 막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101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20년이 넘는 신앙생활의 자존심을 건드는 누구의 외침이었습니다. “네가 그동안 제대로 성경한번 통독이나 해봤니?” “아니면 성경암송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어?” “그렇다고 네가 기도나 제대로 해본 적 있냐 말야” .

예수를 갓 믿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나이 30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나의 삶은 외로움과 우울한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상에 조물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곤 했지만, 그 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막연한 삶의 공허 속에서 내 자신이 떠가고 있음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크리스천모임의 어느 분의 권유로 같이 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크리스천 형제자매의 이상한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고, 그 후 여러 형제를 통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의해 교회에 나가게 되었지만 설교가 윤리적인 말씀이라 여겨져서 교회 나가는 횟수가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밤, 내 방으로 찾아와서 예수에 대해서 묻는 회사동료에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답하고, 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가 내 방을 나간 후, 잠자리에 든 난 그 어떤 부드럽고 강한 뜨거움에 푹 빠져 있음을 느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가는 내 모습은 그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적극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교회 문을 들어서서 순간 나에게 확 느껴졌던 건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평등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을 보다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대하는 순간, 그 구절이 바로 그 날 밤 동료에게 예수를 언급하던 내게 있었던 사건의 구절이었고, 그때 내게 일어났던 현상이 주께서 내게 주신 선물, 곧 성령이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 몇몇 공부모임과 개척교회에 같이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거기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기쁨 속에서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꿈같은 기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나면서는…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는 것보다는… 예배당 생활의 즐거움에만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일에 차차 능숙해지면서 처음에 가졌던 순수함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교인들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알력과 시기 속에서 많은 시간들을 소비했습니다. 지쳐있는 내 모습 속에서 이미 내가 여러 문제 안에 휩싸여 소용돌이쳐지고 있음을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살아야했습니다. 그 옛날 기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내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단순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사실 101 성경공부를 시작하면서 나는 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기본적인 신앙지식을 배우는 것이었기에, 2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해 온 나에게는 아직도 이런 기본 지식을 배우는 것에 좀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101 성경공부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나 ‘성경’ 에 관한 내용을 배울 때 난 좀 당황했습니다. 걸려 넘어져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내게 있었습니다.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아직 기본을 몰랐거나 아니면 기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101성경공부를 끝낸 지금, 아직도 더 정리해야 하고 더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느날 “응 이젠 기본이 되었구만!” 하는 소리가 내게 들려지길 고대합니다. 나에게 이 101 성경공부는 ‘양육자와 배우는자’로 만나는 1대1 성경공부이어서, 배우는 동안에도 많은 이야기를 양육자와 서로 Sharing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진정한 주 안에서의 교제란 어쩌면 이런 공부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제자훈련이 준 교훈

먼저 저에게 뉴욕 예일교회에서 101과 201 제자훈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어 훈련을 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에 출석했고 벌써 20년이 되었지만, 왔다 갔다만 하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사업도 크게 확장할 수 있었고, 자녀들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성장하였습니다. 사업이 확장 될 때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사업이 크게 확장될 때마다 가족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고, 그것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미국경기가 많이 악화되어 나의 사업체까지도 어려움이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저에게 새롭게 연단할 수 있도록 101, 201 제자 훈련을 하게 하였고, 이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 생활과 영생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201 제자훈련을 통해 영적인 훈련들을 체계적으로 하게 되어 내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복종하는 것에 대해 실천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훈련 받는 22기 분들과 교회 공동체에서의 서로의 따뜻한 우정을 느낄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매주 큐티를 하고 독후감을 쓸 때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된 마음으로 변화시켜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 201 제자 훈련을 통해 나의 믿음과 인격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며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22기 201 제자훈련을 마치며

13 주간의 훈련을 참 재미있게 보냈다. 너무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김종훈 목사님,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으로 인도해주심에 감사 드린다. 아마 함께 공부한 우리 모두 받은 은혜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다.

나는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다듬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좀 더 예민해진 것 같다. 훈련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제는 교회에서만 아니라 집에서 그리고 일터 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었다. 어떤 거창한 예배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그냥 그분께 그때의 상황을 말씀 드리고 인도하심을 받는다. 어떤 형식에 벗어나서 그분과 자유롭게 이일 저일 의논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두 번째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나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만 했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는 일방 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 이라는 것이었다. 말씀묵상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요약할 수 있게 되어 매일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단지 나 외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묵상하고 암송한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정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예배에 대한 비전 그리고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었다. 201 훈련 중에 좋았던 것 중 하나는 소책자를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인데 그 주제가 그 주 공부할 교재 그리고 말씀 묵상, 본문, 그리고 성경암송 구절과 다 일맥상통 한다는 것이다. 훈련 중에 읽은 모든 책이 다 좋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예배자를 읽으면서 예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굶주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먹을 빵을 찾는다는 것이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려질 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에 먹을 빵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소문나면 놀라운 부흥이 이곳에 일어날 거라고 믿는다.





신앙생활의 버팀목은 체험

요즘같이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 어디 있을까?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더 바쁜 일상 속에서 난 201 제자훈련이란 시간을 통해 거침없이 흘러가기 쉬운 시간을 멈추고 잠깐이라도 나의 뒷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13주 동안의 201 훈련! 사실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마칠 수 있기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중도에 낙오하는 성도 없이 잘 끝낼 수 있음 또한 감사드립니다. 내겐 소설책보다는 거리가 좀 먼 성경책이었지만 일주일 동안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준비하며 다른 성도들과 나누는 훈련 속에 그들의 마음, 사랑을 접하면서 내게 더 큰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 신앙생활의 버팀목은 체험이다 라는 말을 실감하는 때이기도 했다. 성도들의 큐티를 서로 나눌 때 그들의 간증이 더 큰 은혜로 내게 임했기 때문이다.

큐티와 독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짐하는 나의 약속들이 참 많았다. 지켜진 것들도 있지만 말 뿐이었던 것들이 아직도 내 주위를 맴돌아 나에게 거룩한 부담을 준다. 그런 약속이 있었기에 나를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시던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른 것은 분명 살아계신 분임을 체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201 훈련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음을 느꼈다. 복종의 훈련에서 우린 배려를 배웠다. 배려의 의미는 나의 이익을 버리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나의 무뎠던 성격으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전달되어 마음의 평정이 깨지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힘든 상황이 있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복종의 훈련을 내게 보여주셨다. 사랑의 배려로 덮으라고 하신다. 뜻하지 않은 인도하심으로 난 너무도 놀랐다. 이것은 분명 201 제자훈련 덕분임에 틀림없다.

내적 훈련, 외적 훈련 그리고 단체훈련 이렇게 세 가지 훈련 중에 단체훈련인 고백과 예배를 통해 난 많은 은혜를 받았다. 간증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부터 내게 있어 십자가는 더 이상 교회의 상징만을 뜻하지 않는다. 길을 걷다 보면 보이는 교회의 위치를 알려주는 듯한 십자가의 형상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전에는 식상하기만 했던 십자가가 이제는 사랑으로 내게 다가온다. 두 팔을 벌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피 흘리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말이다. 이젠 보기만 해도 너무 거룩하여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이었다. 이렇듯 하나님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훈련이었으며 13주 동안 영적으로 깨어나 성장하며 변화하기를 원하신 목사님의 수고와 같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바라기를 한 12명의 성도님들께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과 평안은 작은 감사로부터

2013년은 미국에 이민 온 후 세상적으로는 내게 가장 힘든 해였다. 문제 속에 빠져있으면 더욱더 그것에 몰입되면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더 나쁜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 일단 그곳에서 빠져나오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그 힘든 상황에서 건강을 해치지 않고 빠져나 오기 위해 내겐 어떤 결단과 모티브가 필요했는데 내가 택한 방법 중 하나가 6월에 있었던 성경암송대회에 선교회 1회전 선수로 출전하는 것이었다. 교회에 다니게 된 이후 처음으로 도전해 보는 것이었는데 내겐 성공이었다.

운전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구절들을 외웠는데 차를 운전하면서 Radio를 틀고 다니던 습관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내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외울 때는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것 같았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암송할 땐 하나님이 내게 감사할 것을 얼마나 많이 알려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어떤 구절에서는 평평 울게 되었고 날마다 차 안에서 나만의 쇼를 하였었다. 그리고 내게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3달 후 그러한 기쁨이 희석된 즈음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01 제자훈련을 선택하게 되었다. 솔직히 바쁜 생활 속에서 숙제를 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였지만 목사님이 선별해 주신 교재들이 너무나 좋았다. 교재예습을 하면서 읽었던 '영적 훈련과 성장'을 통해 그동안 간과해왔던 부분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고 독후감을 쓰기 위해 읽었던 책들을 통해 나의 정신세계와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그 동안 내가 얼마나 깊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대학재학 때부터 남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현실적인 것, 외적인 것에 치우쳐 있었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몰랐고 항상 바빴지만 기쁨이 없는 삶이 계속되었던 것 같다. 좀더 일찍 이런 훈련을 받았으면 내 인생이 훨씬 더 즐겁고 풍요로울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 세 딸과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더 많이 만들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든다.

지금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많이 힘든 상태지만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가게 앞에 40대 초반의 한국 1.5세 남성이 운영하는 샌드위치 가게가 있다. 작년엔 가게를 인수한 사람인데 그에게 내가 가끔씩 나가는 새벽기도에서 얼마나 힘을 얻는지를 한두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며칠 전에 내게 자기도 너무나 힘이 들어서 새벽기도에 다니겠다고 전해왔다.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이다. 비록 그가 새벽기도에 다니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도 내겐 큰 기쁨이었다. 그 이후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는다.

3년 동안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많은 귀중한 것을 선택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체면, 겉치레, 위선, 남을 의식해야 하는 것 등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주셨다. 또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셨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의례적인 일이 아닌 정말 기쁨을 주는 내 인생에 중요한 행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훈련이 끝나고 내게 훈련을 통해 얻은 기쁨과 위로가 희미해지는 것을 대비해서 내년 2월 말에 있을 니카라과 단기선교 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나의 현재 세상 나이는 50이지만 영적 나이는 이제 막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초등학생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 경륜도 없지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주시면 가장 가능성이 많은 나이이기도 하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좌절을 통해서 버리는 훈련을 시키시며 큰 것을 빼앗아 가시는 대신에 작은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시는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고 작은 일부터 순종하며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해보겠다고 다시금 결단해 본다.

13주 동안 내게 많은 은혜를 주신 201식구들께 감사하고 13주 내내 너무나도 큰 기쁨과 희망을 준 우리 청년 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동안 인도해주신 김종훈 목사님과 조태성 전도사님께도 정말 감사를 드린다.

201 제자훈련



정윤중 집사



함께

이번 201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배우며, 깨닫고, 감사했던 것은 “함께”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언제나 모든 일을 혼자서만 해결해야 했었고, 그런 습관이 신앙에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하면 더 큰 위력이 있다는 것을 이번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였으면 포기할뻔한 훈련 기간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였기에 무사히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나눔을 가질까? 하는 설렘이 나를 모임의 장소로 이끌었고 그곳에는 웃음과 배움과 희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면서 내가 가진 신앙관도 변화가 있었고 그런 내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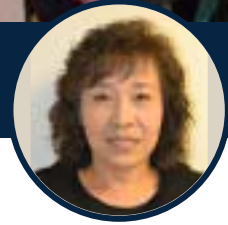
목사님의 유머에 웃음꽃이 피기도 했고, 성도들의 나눔을 들을 때는 몽클함이 그리고 양육 훈련의 목적을 배우면서는 부족했던 과목을 과외 받는 느낌으로 즐겁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나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배웠을 때는 이제껏 내가 가졌던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고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전보다는 성숙한 모습의 기독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고정 관념이라는 틀을 만들어 신앙까지도 그 틀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었던 나에게 청년들의 발표에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발표 때는 연륜의 깊이가 느껴지는 폭넓은 신앙관을 들으며 정체되었던 나의 신앙이 부끄러웠습니다. 만약에 함께가 아니었다면 또 다른 핑계를 대며 뒤로 도망갔을 나를 목사님이 앞에서 이끌어 주셨고 여러 성도님들이 옆에서 함께 하여 주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부족하니까 나부터 내실을 다지자는 내 생각에서 이제는 모두가 함께 하여야 그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지금 나는 참 복 받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제는 내가 아닌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아멘.



최양미 집사



예일의 새가족이 되고나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3주가 지나갔습니다. 시작할 때는 언제 끝나려나 조금 답답한 기분이었는데 차곡차곡 소리 없이 쌓이는 눈처럼 시간은 빨리도 가버린 것 같습니다. 2013년은 내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일교회에 오게 된 것, 또 오자마자 101, 201을 때 맞춰 끝내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101을 끝내고 간증문을 써놔야 하는데 저는 끝까지 써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 자신도 모르겠는데 그때는 간증문을 쓴다는 것이 내키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4년여 기간 동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부작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생각해 보면 목사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는 더더욱 죄송합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건방진 행동이었는지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을 하고 나서는 정말로 간증문을 은혜롭게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변화된 마음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201을 시작하던 첫 시간에 함께 공부할 멤버들을 보고 “와우” 작은 탄성과 우리가 과연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것은 부질없는 나의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목사님의 가르침의 은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을 발휘했고 우리는 매시간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다섯 명의 젊은 친구들은 각자의 개성과 취향이 다 달랐고 모습도 달랐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진정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의 옛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을 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권사님, 집사님들과의 진솔한 신앙 고백과 여러가지 기도제목들, 지금 처해있는 힘든 상황들이 모든 것들을 나누고 기도 했더니 마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 아니라 속사람을 다 알아야 비로소 그 사람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다’ 는 그말 뜻을 절실하게 실감 했습니다. 또 201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과 평안함은 말로 다 할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꿀송이 보다 달다는 표현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매주 한 개씩 외워서 부르는 찬송도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히 나에게서는 성경구절 암송보다는 찬송가 암송이 자신이 있어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3주 내내 목사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행복해 하셨고 피곤하실 텐데도 최선을 다 하셔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 드립니다. 아직까지 201을 못하신 분들에게 빨리 시작하시라고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느낀 감동을 그분들도 같이 공유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어쩌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니 말입니다” 라고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저에게 이런 간증문을 쓸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김신애 집사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

제자훈련을 시작한 지가 벌써 13주가 지났습니다. 잠깐이었던 거 같은데, 벌써 수료예배라니... 처음엔 부담도 되었지만, 이 훈련을 통해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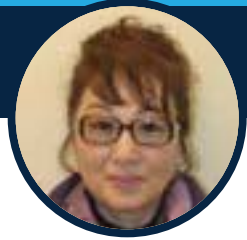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고자 합니다. 긴 방황과 침체의 그늘에서 주님의 빛을 본 것이 1년 전의 일입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새 신자부, 101 제자훈련, 201 제자훈련에 이르기까지 많은 감사의 잔들이 넘쳤습니다. 먼저 남편 직장의 꿈을 주셨습니다. 밤과 낮이 바뀌어 일을 해야만 했고 주일은 잠깐 예배만 드리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어둠 속에서 어둠인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체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이 모든 것이 한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이 예일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정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에 느꼈던 주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져 매일 매일이 즐겁기만 합니다. 201 제자훈련을 통하여 바쁘다는 핑계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이 우선 순위인 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 제자훈련은 그야말로 501 수준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같은 멤버들의 질문들이 웃음과 기쁨을 주었고, 또한 나눔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으로 풍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가 함께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가끔 우리 딸이 바쁜 엄마 아빠를 보며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가 교회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라고요. 행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 그리고 좋은 훈련들...이런 기쁨을 주신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



34년전의 서원

시작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나의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201을 시작한다는 것이 버거울 것 같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잘 아는 권사님의 권유로 동참했던 것이 너무나 잘 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마지막 수업은 놓치고 말았지만 1과에서 12과를 하는 동안 회를 거듭할수록 감동이 밀려 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더 밀접해 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훈련의 가르침이 너무 유익했지만 그중에서도 기도훈련과 홀로 있기의 훈련과 섬김의 훈련은 정말 내겐 너무나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상에서만 목사님의 설교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 아주 가까이에서 말씀 속에서 배움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1을 통해서 배운 것 중 성경에 대해서 또 영적 훈련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너무 영광이었고 특히 단순성의 훈련에서 근심으로부터의 자유는 세 가지의 내적 자세로 특정 지어지는데 우리의 소유물을 첫째는 선물로 받았다는 자세, 둘째는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한다는 자세, 셋째는 다른 사람에게 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앞으로 항상 유념하면서 내 나아갈 앞으로의 인생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훈련에서 친교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첫째 섬김은 그들의 말을 잘 듣고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는 동정하는 마음과 인내라는 것을, 또한 겸손한 자세로 임하라 하였습니다.

201을 끝내면서 절대 자만은 금물이고 이러한 것들을 유념하면서 지킬 수 있다면 앞으로의 교회생활과 나의 영적 성장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감에 마냥 가슴 뿌듯해 지면서 그 동안 수고해 주신 김종훈 목사님께 다시금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34년 전에 서원하고 이제서야 전부를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실수와 약점 투성인 저,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만이 빛을 발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의 빛진 자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고 크기에 내 자신을 다 드러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드리고 그 사랑 안에서 계속 자라기를 기도 드립니다.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제가 몇 개월 전 힘들어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 생각, 판단, Standard에서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선하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Father and Holy Spirit.
I love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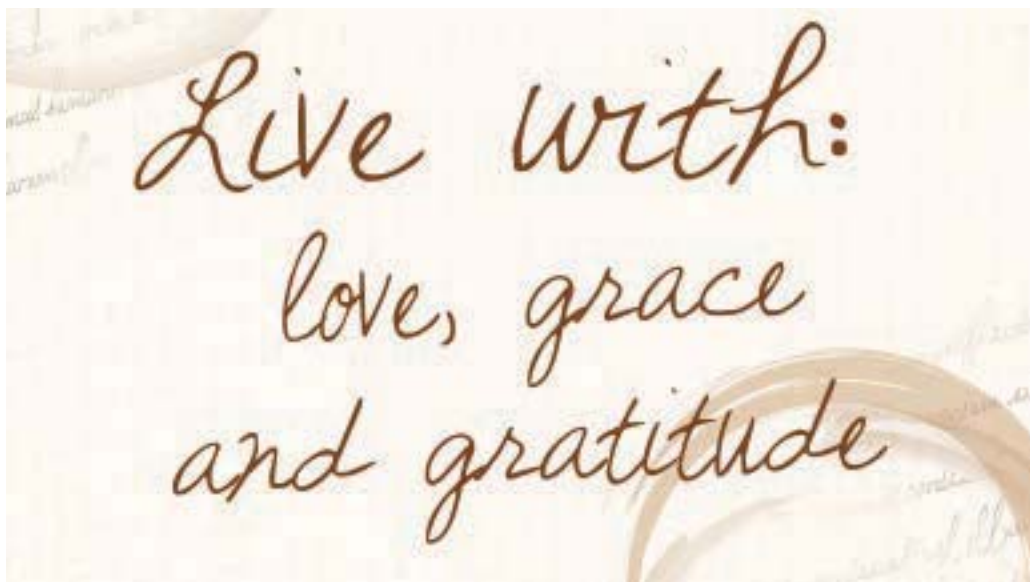
큰 일 날 뻔 했다

‘201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큰 일 날 뻔 했다.’ 가나의 고백이다. 그래서 성구 암송 첫 구절에 이 말을 기록해 놓았다. 사실 난 이 공부를 안 하고 싶었지만 안 하고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아 시작한 것이다.

첫 시간, 아니나 다를까 멤버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노장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목사님께서 “이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겁니다. 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번 말씀하셨지만 '의례 하시는 말씀이지' 하고 건성으로 넘겨 들었다. 둘째 시간부터 과제가 쏟아져 나왔다. 긴장이 되고 힘이 들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공부가 재미있어지다니! 처음 느껴보는 것이다. 배우고 외워 실력을 높여 성경적으로 박식해지는 공부가 아니고 내가 도달하지 못한 것을 하게 되고 모순 된 것을 바로 잡게 되고 볼 품 없는 내 내면의 세계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 가는 꿈을 갖게 되었다.

나는 어느새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어 교회 안으로 끌어 들이려고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다. 내 영적 내면의 세계에 소리 없이 소복소복 하얀 눈이 쌓여 한 층 더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 이번 공부로 목사님께 감사 드리는 것은 목사님께서 직접 지도하여 주시니 거리감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목자는 양들을 구별 되어 알고, 양들은 사랑하는 목자 음성 듣고 알도다 함’과 같게 되었다.

Class member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감사한다. 청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고루 갖춰진 세대여서 모두 소중하고, 나 나름대로 느끼고 감동 받은 것이 많다. 민혜가 집에 가서도 내 눈을 걱정하더라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했다. 섬김의 자세로 본을 보여 오신 장로님은 나에게 큰 교훈을 남기셨다. 부담감을 갖고 시작한 공부였지만 소중함으로 한 시간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과제도 한 번도 놓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를 주신 하나님

2013년은 저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그런 한 해였습니다. 뒤돌아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처음으로 나의 영혼이 깨어지는 축복을 받은 해였습니다. 저의 인생은 아주 많은 감사와 축복이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 많은 축복을 주신 나의 인도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감사한 건 이번 2013 한 해의 101이란 제자훈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201 제자훈련을 통해 나의 영혼이 맑아지고 삶의 지혜를 알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이번 훈련에서 아주 소중한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의 반복되는 죄에 대한 궁금증 또한 그것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태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안다고, 나 또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자였지만 매번 반복되는 죄, 회개하지만 또 주님 앞에서 같은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이것에 대한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적이 아니라 내적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여러 번 외적인 변화는 했지만 단 한번도 내적인 변화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내적인 변화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이번 201 제자훈련을 통해 나의 내적인 변화를 받는 영적 삶의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과 기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묵상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끄럽고 너무 바쁜 삶 속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색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전 묵상이라는 선물을 받고 나니 주님과 가까워 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에 대해 너무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전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주님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는 주님을 바로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201 제자훈련을 통해 주님은 자동 응답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주님께 아뢰는 것 보다 주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라는 것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201 제자훈련을 통해 삶의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 얼마 전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미래의 장인 어른과 한국에서 지리산으로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에 대한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등산 중에 제게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책을 만지지 않은 제게는 너무도 당황스런 질문이었지만 그때 저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전 자신 있게 요즘 교회에서 201 제자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거기서 매주 책을 1권씩 읽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는 미래의 장인어른에게 전 얼마 전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 즐거리는 요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중요한 일보다 바쁜 일을 먼저 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매일 아침 묵상을 통해 나의 하루를 정리하는 삶을 실천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의 장인어른은 제 대답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201은 저에게 삶의 지혜를 알게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알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전 앞으로 묵상과 기도 그리고 찬송을 통해 나의 소리 보다는 주님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되는 훈련을 계속하겠습니다.



하진실 (청년부)

나의 삶도 계획하시네

나는 101 제자훈련을 오래전에 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201은 숙제가 많고 할 일이 많다고 하여서 미루고 미루었다. 사실 이번에도 할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요번에 청년부가 많이 한다고 해서 해볼까? 하는 마음이었지만 확실히 결정하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게 되었다.

난 시작을 하면서 걱정이 앞서기 시작하였다. 학교도 이제 힘들어지고 일도 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했지만 이것은 괜한 인간의 걱정이었다. 숙제가 많고 힘들 때도 있긴 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 나는 내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나의 영적인 부분이 많이 약해지고 무너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 나는 이 훈련을 하면서 주님이 날 위해 일하고 계심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 이 제자훈련이 나의 학기와 딱 맞물렸다. 빡빡한 일주일 스케줄에서 제자훈련 숙제를 하는 것이 많이 벅차기도 하였다. 특히 시험과 프로젝트가 있는 주에는 더더욱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 훈련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아 시험준비와 프로젝트 하는 것 보다 이 숙제를 먼저 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교수님들을 통해서 또는 상황을 통해서 시간을 조금씩 더 주실 때가 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마지막 영어 프로젝트가 있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프로젝트 마감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도와준다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다른 대답이 없기에 다시 편지를 보냈더니 미안하다면서 나만 프로젝트 마감 기간을 연장해준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교수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지막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나는 이러한 사소한 일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되었다.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나의 내면세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며 단단히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또 사랑으로 우리를 지도해주신 목사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훈련

13주의 제자훈련이 어느새 끝났다. 초기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훈련을 가야 하는 것에 적응이 안 되곤 했다. 처음 시작은 별 생각 없이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고, 처음 몇 주는 숙제 하기에 급급 하기만 했다.

교재 문제 풀기, 큐티, 독후감, 요절외우기 그리고 설교요약 이라는 매주 숙제가 처음에는 재미있고 뭔가 뿌듯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추수감사절 주에 한 주 쉬고 다시 시작하려니 게을러지는 걸 느꼈다.

무엇보다 독후감으로 읽었던 책들은 모두 너무 좋았고 나에게 꿀 같은 내용들이었다. 기독교 서적이라 무조건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 아니란 걸 알았다. 지금에서야 돌아보니 숙제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말씀 한자라도 더 보게 하시려고 하신 것 같다.

우선 순위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생활하려고 하고 말씀들을 매일의 나의 삶에 적용하려고 아직도 노력 중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기엔 13주라는 시간은 짧았다. 하지만 튼튼한 밑거름이 되어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계기가 되어 너무 감사한다. 무엇보다 제자훈련 201 22기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그리스 지 (청년부)

사랑스런 딸 되기

이번 주 숙제는 독후감이 아니라고 좋아했는데, 웬지 더 힘든 숙제인 것 같다. 감사한 점 깨닫고 배우고 영적 성장한 점을 기록해 오라는 것이 이번 주 숙제이다. 우선 감사한 점은 너무 많지만 동생이랑 그리고 너무 재미있는 22기 클래스 메이트분들 그리고 우리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

동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듯해 보였고 나는 그것이 늘 걱정이었다.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보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 형만한 아우 없다는데 내가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201공부를 통해 배운 점 그리고 깨달은 점이 아주 많다. 이것도 나 나름대로 목사님을 배려한다는 의미로 한국말로 쓰고 있고 또 선생님들 점심도 종종 싸 가지고 다닌다. 배려를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들에 대해서 배웠다.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 안되었으면 그리고 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나에게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기도에의 모험”이라는 책에 즐거운 축복의 기도라고 있다. “...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택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가복음 6:27-28)”라는 절을 읽고 깨달았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분이러는걸 201을 통해 평소에 잘 읽지도 않는 책을 읽고 선교 때 안 하던 QT를 일주일에 한번씩 하면서 매주 내가 하나님 딸의 삶을 잘 살고 있나 깨달음을 확인해 주셨다. 나는 201제자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께 약속 드린 것도 많고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내년에는 영아부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이번 해에는 한번 밖에 못했던 성경 통독을 두 번 할 것이다 꼬옥! 그리고 아침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약속도 꼭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새벽기도는 매일 못 나가겠지만 집에서라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다. 나는 원래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22기 멤버들한테는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다. 믿는 집안에 태어난 걸 한번도 감사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믿을 좋은 장로님, 권사님 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부모님도 교회 오실 때마다 나랑 에스더 칭찬을 너무 많이 들어서 기분이 좋다고 하셨다. 더욱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



PGM

PROFESSIONAL FOR GLOBAL MISSION





2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윤목사님께서 PGM을 끝내면서 간증문을 쓰라고 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 절대로 안 하겠다고 버티어왔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시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자비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인 것 같은데 저는 중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 겨울 방학에 교협에서 하는 청소년 수양회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 하다가 나중에 학생회에서 친구들이 가자고 해 따라갔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싶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암을 선고받고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때라 아버지를 살려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고 얼음물에 겨우 세수만 하고 교실바닥에서 잠을 잤어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진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짝 짜인 스케줄에 바쁘게 움직였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강사였는지 무슨 내용의 설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것 한가지가 있습니다. 강사님이 선교사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으라고 말씀할 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저는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2000명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몇 십 명이 손을 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때 제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 잘 것 없는 중학교 여학생을 하나님께서는 지명해서 불러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되는 것이 제가 가야 하는 길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3 때 대학입시 준비하고 원서 넣을 때 저는 그 길을 회피하고 보통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해 20년을 교회도 나가지 않고 지내던 중, 대학교 3학년 때 New York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외롭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고 만나 주셨습니다. 대학교 때 공부하는 것과 진로를 정하는데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상에서 즐기고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Melting Pot이라는 New York에서 살면서 이곳이 바로 선교지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지냈고 늘 제 뒷목을 잡는 듯,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마음의 부담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하기 전날 교회에서 둘이 기도를 했습니다. 선교하는 가정이 되게 해 달라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5년 전부터 이루어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Bolivia에 이어 Dominican Republic으로 교회 성도님과 목사님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때 드렸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Yale교회 단기선교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사랑으로 엮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의 회복을 해주셨고 매해 저희 가족 중 한 명은 선교를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제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나의 사랑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보다는 조금 더 알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제일 처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바로 제가 만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임을 가르쳐주셨습니다.

PGM 훈련 처음에는 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도록 인도하셨고 그 학기를 지나면서 제 생각을 많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사람이 만들어 낸 어떤 이상이나 프로그램에 절대로 세뇌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Here and Now라는 concept과 지역교회 중심의 선교라는 concept이 제게는 너무 생소했습니다. 선교는 제3국에 가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학기 하는 동안에 지금 제가 이 교회에서 있어야 할 곳은 CCM(EM)이라는 마음의 굳힘을 주셨습니다. 이 굳힘은 힘들 때에도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2학기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2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나누어주셨고, 그들의 아픔을 느끼며 많이 울었습니다. 2세들은 CCM(EM)과 Youth Group은 얼굴도 한국사람이고 한글도 쓰고 한국말도 좀하고 한국드라마와 문화도 즐기지만, 우리 1세 하고는 너무나 다른 또 하나의 종족입니다 그들이 교회 가서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다르고 저희 1세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또 하나님의 종족 저희 2세와 Young American Generation이 저희의 선교대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PGM을 통해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은 모릅니다. 그저 때가 있어야 한다니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를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시며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가르쳐주실 것입니다. 상황을 그렇게 벌써 만들어 가기 시작하셨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제게 조금씩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Powered by the
HOLY SPIRIT



PGM 전문인 선교

처음 예일교회에 와서 신앙 생활하면서 그 받은 은혜와 감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희주 장로님의 권유로 처음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03년, 선교지는 고산지대인 볼리비아였습니다. 처음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와 감격은 늘 내 속에 있고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후부터 나의 마음과 생각은 늘 선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매년 선교 때만 되면 나의 마음이 들먹들먹하며 선교를 갈려고 애도 많이 썼습니다. 어떤 때는 가게 문을 닫고 또 매번 가게를 봐줄 사람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의 생각으로는 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선교를 통하여 많은 은혜도 받았고 또한 선교를 통하여 내 자신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회복됨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선교지 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또 예비하신 은혜를 보고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선교를 잘하는 예일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나의 부족함과 허물 때문에 선교를 한다는 것이 마음속에서 찢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우리교회에서 PGM Vision School이 있게 되었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Professional 이나 Mission이란 단어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우리 같이 일반인들에게는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교육을 받는 동안 저에게는 너무나 유익하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1. 선교의 역사와 현재 선교의 상황, 2. 선교사의 자질과 성품, 3. 선교와 은사, 4. 성령과 선교 등등 우리가 배우고 갖추어야 할 귀한 것들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선교의 제4물결의 시대,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목회자나 전문 선교사님들 에게만 맡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온 교회의 선교화 온 성도의 선교사화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전세계 인구 71억 명중에 개신교 인구가 4.4억 명(6.2%)인 것이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이 발전하여 세계 경제대국이며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였지만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문제로 인하여 세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민족 중에 1등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진실로 변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전도나 선교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고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PGM 4대 핵심가치를 소개합니다.

- 1) **디아스포라 선교:** 하나님이 보내주신 디아스포라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이다.
- 2) **지역교회 중심 선교:** 우리가 섬기는 예일교회가 선교의 모체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인 교회로 성장.
- 3) **전문인 선교:** PGM에서 정의하는 전문인, 일반적 의미의 전문인이 아닌 사역적 의미의 전문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은사, 재능을 복음전파의 도구로 드림
- 4) **Here and Now:** 내가 있는 이곳이 나의 선교지, 가정, 교회, 지역사회, 직장에서 부족한 저도 이것을 실천하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에게 PGM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PGM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변화되어 많은 주의 일꾼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가정과 교회와 직장 나아가서는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PGM교육을 위하여 그동안 수고하신 강사님들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훈련을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뒤 돌아볼 때,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님의 꿈 선교에 대한 영적인 눈을 새롭게 뜨는 한 해가 되었기에 기쁨과 감동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일 교회에 새롭게 PGM 전문인 선교학교가 시작되었고, 제가 이 훈련에 참가하여 이제 이렇게 제 1기로 당당히 졸업을 할 수 있어서 제 자신이 조금이나마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것과 스스로 '수고했다' 라고 생각하니 저절로 웃음과 동시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의 훈련이었지만 얼마나 귀하고 은혜의 시간들의 연속이었는데 매 시간 시간들이 정말 꿈같이 지나가서 벌써 졸업을 한다는 것이 믿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봄 학기와 가을 학기로 구성이 된 이 선교 훈련은 매 주 강의 시간마다 선교에 관한 다른 주제들로 그 분야에 전문인 선교사님 목사님들께서 온 정성과 심혈을 다하여 강의하시므로 듣고 배우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눈과 귀를 크게 뜨게 하시고 열어주심을 체험하는 감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훈련의 훌륭한 점은 이론만을 가르치는 강의가 아니라 모든 강의가 실제와 체험의 현장이 많았고 PGM 선교를 여러 각도와 다른 주제로 깊이 있게 조명하고 다루었으며, 언제나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산 지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PGM 선교 훈련을 위하여 매 시간마다 그 강의에 맞는 최고의 강사님들을 보내셨고 가르치시는 선교사님들은 강의 자체가 본인의 삶이요 선교 간증이였기에 뚜렷하게 보고 들으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그룹별로 깊게 생각하며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들도 많이 가졌기에 배운 지식들이 나의 삶과 뼈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선교와 선교사에 대한 나의 잘못되고 무지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었고, 나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시대의 선교사라는 사명을 확실히 그리고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선교사이며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선교사는 누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나요? 아니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토록 이 훈련을 통하여 깊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PGM 훈련을 위하여 먼 곳도 마다 안 하시고 맡으신 강의를 위해 오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신 모든 선교사님, 목사님들의 헌신과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훈련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고 총괄하여주신 윤승진 목사님과 윤희주 장로님 그리고 찬양을 맡으신 박성하 전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간곡히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이 PGM 훈련을 마치고 졸업예배를 드리는 저와 졸업하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배운 대로 행함이 있도록 더욱 더 정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꿈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 PGM 훈련을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데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이 집사



Here and Now

선교라는 단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와는 너무 거리가 멀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해드리고 물질로 조금 도움이 되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나를 합리화 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호성기 목사님의 부흥 집회 후 PGM을 듣기로 결정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듣기 시작했다.

너무 은혜로운 선교사님들의 열정적인 간증적 강의는 30여 년 신앙생활의 나에게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었다. 그리고 2학기를 끝내면서 주님 안에서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생겼다. 그냥 습관적으로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보다 그냥 바쁘게 지나가는 열매 없는 교회 봉사보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향기를 내지 못하며 사는 삶들이 이대로 변화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제시됐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Here and Now 라는 것으로 풀어졌다.

선교라고 하면 가정이나 교회를 떠나 힘든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PGM의 선교는 가정이 선교지이고 자녀들이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위의 직장, 이웃 사람들이 모두 선교의 대상자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 내 가정과 내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때 준비된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PGM을 하며 많은 토론의 시간을 가졌는데 진짜 마음의 허물들을 다 내어놓고 토론했다. 그냥 가정의 문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던 관계보다 선교라는 Title을 놓고 진지하게 인격의 변화와 형성을 위하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허물을 다 내어놓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어주며 주님의 자녀들로서 특별한 사랑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도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여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주님께 감사했다

His Abundant Grace and Guidance

Over the past year, God has blessed Christ Centered Ministry with many changes that have helped grow and cultivate our young ministry. One of the most significant blessings we have seen has been the relocation of our worship service to the main sanctuary. At first, the change from an 11AM service to a 1PM service seemed inconvenient, however over time we saw God's purpose behind this decision. For one, the time change allowed for Bible study before service which has helped enrich and strengthen our member's faith and theology.

Also, the service held in the main sanctuary has help our members focus on God and worship more sincerely. We have also seen growth within the new small groups of CCM including our Vineyard, Pursuit and Promise groups. From monthly bible studies to organized events, we have experienced a greater bond of fellowship and a stronger sense of community. As we draw closer to God, we have been able to grow closer to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Finally, we have been greatly blessed by Pastor Ahn and the rest of the CCM leadership. Their heart for service and dedication to the idea of "Christ First" has helped shape CCM into a ministry committed to honoring God. We continually thank God for His abundant grace and guidance in Christ Centered Ministry and look forward to what He has planned for us in the future.



God Truly Revealed Himself

2013 has been a year that God truly revealed Himself to the members of Christ Centered Ministry. In Exodus 3, Moses met the living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Moses probably heard about God and was probably even familiar with the stories of what God had done; but in Exodus 3, God reveals Himself to Moses in the form of a burning bush that did not burn. This revelation was personal, powerful and undeniable.

2013 has been that kind of year for many of us, especially those who attended the summer mission trip to Guatemala. There were many challenges that we had to face, namely that this was a nation we had never done missions work at. We were not familiar with the nation, people, churches, culture, or the missionaries we would be partnering with. It was clear to us that God was calling us to go, but many of us became concerned with how inadequately prepared we felt. However, despite all the problems that we faced, we chose to go in faith. Just as Paul said in Hebrews 11 that faith is the evidence of things unseen; God began to reveal to us the things we could not see but believed that God would do. Town after town, village after village, church after church, event after event; God poured out His Spirit in a way that was undeniable to all those that were there to witness and experience.

Many who never knew Jesus surrendered their lives to God and received the gift of eternal life. Many who knew Jesus encountered God in a fresh, new way and experienced a renewal and revival of our first love for the Lord. What's been equally as exciting is seeing God's heart being made evident not only in a foreign country but in our local community as well. The same Spirit that was poured out on us in Guatemala continued to be poured when we returned home and we saw many members of Christ Centered Ministry surrender their lives for the first time and many others recommitting their lives to the Lord. God is good and I've witnessed that this will always be true. God was, is, and will always be good.





박지혜 집사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 간절히 갈망하며 소원할 때

조용히 다가와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 기뻐서 즐거이 노래할 때

나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힘겨워 지쳐서 멈춰설 때

나의 손 꼭 잡고 함께 가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약속한 그 날 반가이 맞으실 때

수정 길 따라가며 마를 인도해 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마을 한마당

목장, 총무 감사

1목장 김종호 목자님과 황금자 총무님께

엣그제 목자 총무님께 감사의 글월을 드렸는데 벌써 한 해가 흘러 또 펜을 듭니다. 세월은 무심히 흘러가고 우리는 성경 가방 들고 왔다 갔다만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제일이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통한 말씀으로 스며드는 가랑비를 맞으면서 싹을 틔우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삶이 너무 힘겨워 한 주일을 생활전선에서 헤매다가 주일에 와서야 그 단비를 깨닫습니다. 같은 목장 식구와 친교를 나누면서 그것을 깨달으며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목자 총무님의 보살핌이 편안히 돌아가는 수레바퀴가 맞물리듯 하니 우리는 애 늙은이가 된 듯 따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목장 식구들의 안부를 챙기고 심방하고 기도해주시는 목자 총무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새해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옵시고 평화롭고 건강한 새해가 되소서.

김주상 권사 드림

2목장 유학준 목자님과 장관우 총무님께

할렐루야

오늘 아름다운 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목자 되시는 유학준 장로님은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환한 미소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마치 천사의 마음으로 저희에게 전하여 주는 듯 하시며 저희를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기도해주시곤 하셨습니다. 언제나 아비의 마음으로 목원들에게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보며 제 눈시울을 적시곤 했습니다.

총무 장관우 집사님은 뒤에서 목자와 목원을 섬기기 위하여 차량으로 섬겨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힘쓰고 애쓰며 기도로 언제나 후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밖에 저희 목장의 자랑 권사님들과 목장의 꽃 아론이로 인하여 언제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목장으로 1년을 지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날개 아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목자와 총무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LOVE YOU!

윤미숙 집사 드림

예수마을 한마당

목장, 총무 감사

3목장 지재홍 목자님과 신영필 총무님께

주님의 사랑을 받은 목원들이 주님의 향기를 전합니다. 해가 바뀌면 우리 모두는 새롭다는 설렘으로 새로운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할 목장의 모임도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새로이 만나게 될 목원은 누구이며 몇 목장으로 섬기게 될까. 목자와 총무는 어느 분 일까?

얼른 오세요 집사님들... 많이 드시라며 손수 만드신 음식을 대접하느라 장로님 아주 바쁘십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신 채 장로님은 또 과일과 차를 준비하시느라 분주하셨겠지요. 다른 집에서는 볼 수 없는 장로님의 섬김의 방법입니다. 집이 좁아서 서로 무릎을 맞대며 나누었던 은혜, 굽혔던 다리가 걸려서 서로 다리를 주물러 주었던 아름다운 섬김. 발 냄새를 풍겨도 정겨운 웃음에 묻혀 향기로움으로 머물렀던 그 시간들.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끝나면 경건함으로 목장예배가 시작되었지요.

우리목장은 모두 찬양대를 섬기시는 분들로 찬양에 은혜와 힘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옥경 사모님은 늘 “난 목장모임이 좋아요. 목장예배가 기다려져요” 외쳐대셨지요. 때문에 특별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발걸음을 재촉하게 되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장예배를 참여했습니다.

월남쌈의 기막힌 핫소스의 매운 맛으로 식어지지 않는 열기와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일년을 함께 했습니다. 앞에서 이끌어주신 목자님과 총무님 덕분에 사랑의 식탁을 준비할 때도 서로의 호흡이 잘 맞아 더 맛있는 오뎅국을 만들게 되었고 오뎅국하면 3목장, 3목장 하면 오뎅국이라고 할 정도로 사랑으로 우려낸 맛의 비결도 있었지요. 두 팔 걷어 부치신 장로님을 닮아 설거지의 대왕으로 등극하신 박정호 집사님 내외분. 예쁜 예인이 예원이가 추수감사절 찬양제를 빛내주기도 했어요. 마지막 목장예배 모임에서도 예일의 지체들을 만나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 하게 되었고 축복기도의 선물도 받았지요. 함께 격려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신 것, 좋은 목자님, 총무님의 기도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순수함으로 우리의 생이 되어주신 목자 지재홍 장로님의 섬김에 깊이로 목원들을 잘 보살펴 주신 총무 신영필 집사님. 한 해 동안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4년에도 또 다른 목장을 섬기실 때에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문구 집사 드림

4목장 김현수 목자님과 정건수 총무님께

먼저 4목장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1년 동안 감사한 일, 아쉬운 일, 그리고 슬프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같이 기도해 주신 목자님과 총무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신 주님을 우리 목장 안에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기도하며 섬겨주신 것 감사 드리며 가장 안타깝고 힘들었던 일, 원치 않은 병으로 힘들어 하는 목원을 위해 서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목장 예배 때는 서로 아쉬워 하며 또 같은 목장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모두가 할 정도로 은혜롭고 행복한 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푸짐하고 맛깔스런 음식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신 이포영 권사님과 정태인 권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원일동 드림

예수마을 한마당

목장, 총무 감사

5목장 이주익 목자님과 김인철 총무님께

2013년의 제 5목장을 통해 모든 목원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5목장을 위해 늘 기도해주시고, 먼저 섬겨주신 이주익 장로님과 이영선 권사님의 만남은 올해 더욱 사랑스런 목장예배가 되었습니다.

또한 총무로 계신 김인철 집사님, 임정현 집사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인도해주시고, 특히 주님이 주신 탕런티한 음성으로 찬양을 인도하실 땐 더욱 은혜스런 목장 예배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임이었지만 목장예배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기에 조금도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음은 아마도 5목장을 위해 먼저 수고해주신 목자님과 총무님의 수고와 기도가 있었음을 감사 드립니다.

2013년 묵묵히 수고해주신 목자님 총무님!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2014년이 되기를 모든 5목장 목원들이 기도 드려요~

나현아 집사 드림

6목장 송광수 목자님과 최정희 총무님께

먼저 한 해 동안 목자, 총무로써 너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목원들 챙기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감사할 일 밖에는 없네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참석 못해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었지만 그래도 잊지 않으시고 연락 주시고 권면해주셔서 감동했습니다.

또 권사님 올해 수술하시고 건강상 힘들었을 텐데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방 봉사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일하는 것이 훨씬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송광수 장로님, 최정희 권사님, 두 분 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잘 마무리 하시고 2014년에는 더 더욱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할게요. 끝으로 송 장로님 옆에서 목녀로 애쓰신 방영희권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6목장 핫팅!

유은미 집사 드림

7목장 한기하 목자님과 박성우 총무님께

일 년 동안 7목장을 사랑으로 섬겨주신 한기하 장로님과 박성우 집사님께 감사한 것을 생각하니 너무 많아 글로 다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고 제 삶에 영향을 주었던 것 세 가지만 말씀 드리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비록 한 달에 한 번 짧은 만남이지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시는 한기하 장로님과 구속자 권사님 부부, 그리고 박성우 집사님과 김영애 집사님 부부를 통해 섬김과 사랑의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일,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도맡아 하시면서 목장식구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보살피시는 두 분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서로 성도들이 섬기며 교회생활을 해야 하는 지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가정을 어떻게 일구어 가야 하는지 알게 해주신 두 분께 감사 드립니다. 비슷한 또래들이 모인 선교회와는 달리 여러 연령대의 목장식구가 모여있으니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목자와 총무 가정으로부터 배웁니다. 공처가를 넘어 경처가를 자칭하시는 한기하 장로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얼마나 구 권사님을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항상 감사와 사랑으로 나누는 박성우 총무님. 결국 좋은 가정의 기본은 부부간의 사랑과 아낌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목자와 총무님께 감사 드립니다. 뜬금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일들, 직업, 비즈니스를 우리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신앙생활은 사후를 위한 보험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목자님과 총무님들과 교제를 하고 목장에 참여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일과 사업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남들이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생업을 하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도록 선교활동에 힘쓰고, 교우들을 돌보는데 아끼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두 분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삶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나의 삶을 위한 생업이었을 때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일은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세상 일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두 분께 감사 드립니다.

새해에도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셔서 목장을 섬기실 때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기도 드립니다.

한기하 장로님, 박성우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제진 집사 드림

8목장 윤희주 목사님께

짊어지신 삶의 무게만으로도 버거우실 텐데 당 회원으로, 선교부장으로 거기에 목자까지, 지난 한 해 수고하시는 장로님을 보며 정말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 힘과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기시자마자, 추수 감사절 찬양제에 함께 할 수 있으셨던 강해옥 권사님을 뵈면서 목장에서 함께 힘을 합해 하나님께 올려 드린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목원들에게 간증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린 모든 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저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되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장로님 저희 목장의 목자가 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했고, 8목장의 목원으로 지낸 올 한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8목장 빅용훈 총무님께

올해에 주신 말씀대로 손 대접하기를 결심하신 총무집사님과 매번 집을 열고 함께 나눌 음식을 준비해 주심으로 총무님의 결심이 결심에 그치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와이프 이경화 집사님, 저희 모든 목원들이 정말 감사했고 또 그 사랑과 헌신의 수혜자로 정말 행복했습니다.

목원들의 기도제목을 한 페이지로 정리해주셔서 서로 중보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목장을 통해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 있었던 것, 릴레이 금식기도를 통해 어려움 당한 가정의 간절한 기도제목을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총무님의 고민과 섬김을 통해 저희 목장이 하나로 연결 될 수 있었고 더 모이기를 힘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 주심으로 저희 목원들에게 도전을 주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시는 모습을 통해 은혜 받게 한 총무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목원일동 드림

예수마을 한마당

목장, 총무 감사

9목장 한대영 목자님과 임병설 총무님께

1월에 목장모임으로 처음 모인 날이 떠오릅니다. 목장의 형태가 바뀌어서 목원이 많아진 것은 안내지로 받아보고 알고 있었지만 막상 모이고 나니 정말 많았던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까지 30여명이 훌쩍 넘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목장 모임을 마치고 난 느낌이 어떠신지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늘 한결같이 웃는 얼굴로 대해주시고 반겨주시고 주일날은 오며 가며 여러 번을 만나도 만날 때마다 눈인사라도 잊지 않으시던 자상하신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매 목장 때마다 한 가정이라도 더 참석하게 하려고 애쓰시며 배려하시고 챙겨주시던 임병설집사님과 박지혜 집사님의 아름다운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항상 모임 때마다 목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맛있는 것으로 정성을 다해 손대접을 하셨던 목장식구들, 특히 한 여름 밤의 삼계탕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정성이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부서에 있다 보니 2부 예배를 드리고 친교실에서 애찬을 같이 나누지 않기에 아는 교인들 보다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 저에게 이번 목장을 통해 여러 가정을 새롭게 알게 하시고 섬기게 되었던 것도 참 좋았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즐겁고 감사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의 숨겨진 기도와 겸손으로 섬기시는 사랑 때문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진영 집사 드림

10 목장 김준택 목자님과 박재우 총무님께

2013년은 하하하 호호호 웃으면서 매달 마지막 주 목장모임을 기다리는 해였습니다. 처음에 여러 목장이 연합으로 모여 약간의 우려 가운데 첫 달을 맞이했지만, 전 그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마음은 처음 오신 가정에게도 전달되어 편안하고 익숙하게 목장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항상 참여하게 되고 나아가서 교회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달 서로의 집을 오픈 하겠다고 나섰고 서로 음식들을 해오고 기념사진도 같이 찍고...

그것은 또한 김준택 장로님 가정과 박재우 총무님 가정이 매달 연락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애쓰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는 목장 찬양제였습니다. 몇 주 모이는 동안 김미라 권사님은 너무 열심히 밥 해오시고, 매주마다 다른 찌개를 끓여오시고 (마치 당신의 특권인 것처럼) 거기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너무 열심히 연습하며 장차 대상을 받으면 찬양예배시간에 앙콜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반 걱정 반 까지 했었지요!!

발바닥 비비고 허리 돌리고 줄 맞추면서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가운데 장로님 가정이 편찮으시지 않은 것 또한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힘내셔서 맡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드리겠습니다. 화팅!!

곽정희 집사 드림

예수마을 한마당

목장, 총무 감사

11목장 조종희 목자님과 한수연 총무님께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정신 없이 바쁘게 살아온 날 들을 되돌아 보며...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조종희 장로님이 가르쳐주신 101성경공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을 위하여 열심히 목청 높여가며 가르쳐주신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도 저녁 늦게까지 우리를 위하여 피곤함도 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장로님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항상 먼저 나오셔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여 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목장예배의 중요성도 알고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목원 식구들...

또한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뜨거운 불 앞에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항상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주신 김경숙 권사님께도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 드립니다. 남들 보다 먼저 나오셔서 애쓰시고 목원들을 위하여 힘든 줄도 모르시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섬겨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한 11목장의 총무 직을 맡으신 한수연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집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일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몰랐을 것입니다. 입으로만 전도하신 것이 아니고 몸소 행동으로 눈물로 환영해 주실 때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말로만 인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아이가 자기가 걸을 때까지 보살펴 주는 것처럼 하나하나 신경 써주신 한수연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11목장 여러분 모두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 박영숙 올림

12목장 오현섭 목자님과 최형석 총무님께

2013년 한 해 동안 저희 12목장을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목원들의 삶 속에 위로와 격려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모이기를 꺼려해서 기도를 멀리하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귀한 목장 모임을 통해 음식을 나누고 기도제목 나눔을 통해 삶을 나누며 각각 마음속에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 갔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귀한 시간이었는지 감사가 넘칩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손길로 목원들을 아껴주시고 챙겨주신 이재덕 권사님과 최지선 집사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12목장 목원 일동

예수마을 한마당

부부의 삶을 마치고

이번 부부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결혼과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뚜렷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였다. 가르쳐 주시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그림을 보니 그 안에 하나하나 필요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 이해되어가며 더욱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여자로서 아내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으로 들으며 나 자신을 점검해 보게 될 수 있는 기회도, 그리고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들에 우선순위가 정리되어 졌다.

처음에 부부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듣고 나눌 남자 친구가 있지 않아서 고민도 되고 시작하며 아쉬운 부분도 느꼈지만, 지금 이렇게 마치고 난 후에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결혼이란 것을 위하여 내 자신 스스로도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살피게 되고 더 또렷한 기도제목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기도제목에 감사하여,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더 준비된 여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그리고 또 예비하여 주신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연애를 하고 만나야 할지도 설렘 가운데 기대도 생겼다. 배우자 기도를 하며, 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나의 배우자에게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길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나에겐 이 강의도 그 기도 응답에 한 부분이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들었던 내용을 까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마다 다시 돌아가 되새겨보며 기억할 수 있는 교재도 너무 감사하다.

이번 부부의 삶 강의는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과 결혼의 소중함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값진 배움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만남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길 소망한다! 우리 자매들 한 명 한 명과 나에게도 필요한 때에 이 강의를 듣게 해 주신 하나님과 사모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김정란

우선 제게는 정말 좋은 시기에 부부의 삶이라는 것을 듣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드립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서 느끼는 것은 우리 능력의 아버지께서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간섭하지 않으시고 주관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소중하게 와 닿는 것이 부부의 삶이고,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는 함께하는 첫날부터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갈 앞날을 그려보니 내일을 감사하고 기대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서로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며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부부가 되도록 부족한 제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부부의 삶에서 배운 것들 중 제일 기억에 남는 하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지 일주일일이 돼가는 이 시기에 돌아보면 저희가 서로 좋은 습관을 약속하며 즐겁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부부의 삶 덕분이었습니다. 정말이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저희 부부를 더 단련시켜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저희 부부가 함께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예배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 욕심으로 앞서서 남편에게 닦달하지 않도록 항상 저를 돌아보겠습니다.

부부의 삶에서 배운 것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아버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항상 순종하는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신 남편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홍주희

예수마을 한마당

부부의 삶을 마치고

보통 주변 사람들로 부터 꿈이 무엇인지, 나중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저의 대답은 뭐가 되고 싶다는 것도 있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했는데 사모님과 매주 만나며 강의를 들으니 전체적인 틀이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부부의 삶을 통해 배운 점은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게 성서에 따른 결혼관과 가정의 비전을 알게 되었고, 각 시기마다 부부 사이의 특징과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해결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외에도 대화법이나 자녀 양육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간접적으로 많은 예화를 통해 접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은 가정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을 때인데 아마 제 삶 속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있지만, 가정예배를 드려 본 적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정 제단에 대해들을 때 정말 귀가 솔깃했고, 예배를 통해서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영적으로도 성숙해지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에 내가 나중에 엄마가 되면 꼭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서로 사랑하는 감정만을 가지고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을 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청년부 자매들은 결혼 전에 이렇게 먼저 배우고 준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어서 하나님 방식이기에 잘 순종하며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준비해서 주님이 주실 믿음의 가정을 잘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작은 천국과도 같은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애진

먼저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부의 삶'을 들음으로써 저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더욱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깨달았던 것은 주님 안에서 남편과 제가 이루어가야 할 삼각관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남편과 저 둘만이 이루어 나가는 부부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주님을 더욱 열심히 믿으며 주님의 사랑받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다짐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에도 변화를 가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나의 짝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힘이 되어 줄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배우자를 만나면 참으로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배우자의 부족함이 있을 때 채워주고 그 사람이 힘이 들 때 도움을 줄 준비는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기 전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혼자라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또한 미국에 와서 혼자 살면서 주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외로웠고, 배우자를 만나면 삶이 더 즐거워질 것이고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삶을 통해서 제 스스로부터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온전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만나야만 완벽해 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 배우자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현실적인 결혼생활에서 만약 제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한다면 거기서 제가 실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를 도와 줄 배우자가 아닌 서로의 삶을 공유할 배우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결혼생활에 있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행해야 할 지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의 소망은 가르쳐주신 말씀 항상 다시 보고 기억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 이루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 듬뿍 받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해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밝게 지내며, 저의 배우자를 기다리고 맞이하고자 합니다. 가르쳐주신 말씀, 그리고 책 모두 감사합니다. 항상 꺼내보며 지혜로운 부인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제가 앞으로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김지현

예수마을 한마당

부부의 삶을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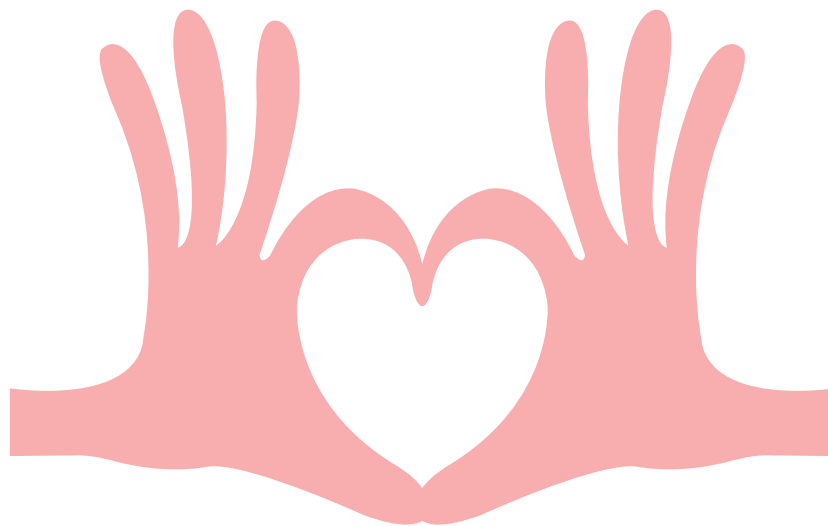
제가 '부부의 삶'을 처음 알게 되고 듣고 싶다고 느낀 건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곧 결혼을 앞둔 아름다운 연인이 '부부의 삶' 수업을 듣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두 분 모두 환하게 웃으며 "아주 좋아. 보연이도 나중에 꼭 들어!"라고 말해줬던 그 순간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드디어 이번에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결혼생활을 하고 있거나 지금 당장 결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공부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막연히 믿음의 가정을 원했는데 믿음의 가정의 참 의미를 알게 되어 감사하고 그런 가정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 배운 집을 빔대어 그린 믿음의 가정의 그림이 마음에 참 많이 남는데 집 구조 하나하나가 굳건히 잘 지어질 때 비로소 튼튼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진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면 '이 그림을 꼭 붙여놓고 항상 보면서 살아야지!' 하고 다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이 아닌 나를 먼저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면서 한없이 부족하고 부정적인 면이 많은 내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스스로 변화되기를 그리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수업 중에 한번은 노년기에 대하여 배우는데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육체적, 정신적 변화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변화들이 제 부모님께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두 분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0주 동안의 수업들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믿음의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임을 깨닫고 나아가 이런 가정 안에서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런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가장 귀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수업을 통하여 주신 교재와 말씀을 우리 가정의 한 권의 교과서로 삼아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부모님과 배우자와 함께 복습하고 이겨내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시기와 여건들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한 사랑하는 예일 교회 자매들과 제 인생에 있어 꼭 필요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보연





사랑하는 슬기에게

이 시간 너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한다. 이 세상에 너를 보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부족한 엄마와 아빠에게 4번째의 축복인 너를 주시고 너로 인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슬기가 누워서 자는 모습도 주의 은혜이고 방긋 웃어주는 모습도 주의 은혜, 우는 모습도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너를 가지고 9개월 내내 우리 슬기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아이로 키워주시길 기도했다.

슬기가 성장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꼭 알길 바란다.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기도할게. 엄마 아빠에게 예쁜 선물로 주신 슬기야, 너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의 포장을 하나하나 열어 갈 때,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슬기를 너무도 아끼는 언니들과도 매일매일 함께 기도 할게. 작으나마 이 세상에 너를 보내신 Papa God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예쁜 슬기가 되길 기도 할게. 사랑하고 축복한다.

슬기 세례 받는 날을 축하하며

2013년 12월 25일

한송만, 한미선 집사



하나님의 은혜 하은아!

우리 만난지 벌써 4개월 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네...

오늘은 2013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의 날 아침이고, 하은이가 유아세례를 받는 특별한 날이기도 해.

아직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너를 대신해서 아빠와 엄마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생각하니 감사하면서 떨리기도 하고 뭔가 벅 차오르는 감격에 가슴이 설렌다...

축복의 사람 하은아,

이 세상가운데 너를 보내시고 많은 만남을 계획하신 주님을 찬양해. 앞으로 하은이가 만나게 될 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고 또한 사랑을 전하는 밝은 사람이 되렴.

믿음의 사람 하은아,

앞으로 너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많이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사람이거나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렴.

기도의 사람 하은아,

기도는 너를 돌아보며 너의 주변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거야. 많은 것들이 쉽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 바라보며 너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겸손의 사람이 되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아빠와 엄마도 사실 주님 앞에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이야. 앞으로 하은이의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나는 동안 아빠 엄마도 조금씩 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할게.

훗날 하은이 너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그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드리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하은아 사랑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제가 어릴때부터 줄곧 절에 다니는 그런 환경속 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2004년 미국에 오게 되었고 딸아이는 가까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굳이 말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전폭적인 지지나 격려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에 살다가 롱아일랜드로 이사를 오면서 제 와이프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와 마찬가지로 무관심 속에 와이프의 신앙생활을 관망하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호박죽을 가져가야 하는데 짐이 많으니 좀 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꼭두새벽부터 무슨 호박죽인가 커피나 마시면 되지” 하는 말을 겨우 참고 그래도 차마 거절할 수는 없고 해서 불만을 참고 교회로 갔습니다. 호박죽만 얼른 내려주고 올 심산이었지요. 그런데 우연찮게 5선교회 김중수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배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난생처음 목사님이 엎드려 기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교회에 다닐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집사님이 내일 뵙겠다고 했을때 약속은 했기에 다음 날 오늘만 잠깐 갔다가 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어색한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어떤 여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 윤 목사님 이셨습니다) 오셔서 이름을 적으라고 하길래 그저 형식적인 것 인가보다 하고 적어 드렸지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오늘 등록하신분이 계십니다” 하며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아니 좀 전에 써낸 게 등록하는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지요. 교회에 등록하려면 면담도 하고 차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후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줄 알고 있던 저는 크게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엉겁결에 일어나서 박수를 받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밖으로 나오니 또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것 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사진 찍기를 무척 싫어합니다. 여자로 태어났거나 좀 늦게 태어났다면 분명히 의술의 힘을 빌렸을것입니다. 아무튼 사진을 찍고 만나는 분들과 정신 없는 인사를 나누면서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했지요.

그렇게 당황스런 주일을 보내고 또 주일이 돌아왔지요. 저는 나름대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2부예배를 참석하자, 투명 인간이 되자, 살짝 갔다가 오자, 그래서 2부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순간 김중수 집사님과 맞닥뜨렸지요. 그렇게 일찍 나오시는 줄 몰랐던겁니다. 집사님께 적당한 핑계를 대고 빠져 나오려고 했지만 집사님은 처음엔 교제를 해야 한다며 요지부동 이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갈 데도 마땅치 않고 해서 3부예배에 또 참석했지요. 목사님 께서 유심히 보셨다면 “아니 저 친구가 얼마나 감동스러웠으면 또 예배를 드리나” 했겠지만 사연인즉슨 그리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없는 기쁨이 그것이었습니다. 까닭모를 웃음이 절로 나고 세상 비밀을 풀 열쇠를 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다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 같다고 기뻐하고 아이도 기뻐하고 저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저는 새벽기도에 참석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잠시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새벽기도 참석인가 하는 주변의 눈을 의식했고 두번째는 일설에 의하면 갑자기 새벽기도에 나오면 목사님 가슴이 철렁한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솟구쳐 나오는 기쁨을 주체할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좀 더 올바른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4일 첫 새벽기도에 참석하던 날 비가 좀 오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그 시간이 애뜻하게 헤어진 첫사랑 이라도 다시 만나러 가는 듯 얼마나 설레고 가슴이 뛰던지 모릅니다. 그렇게 새벽기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때는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던 중이었는데 말씀 중에 파벌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혹 그러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무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한 20일 말을 안 들으면 속이 좀 상할 것입니다. 한 2년 말을 안 들으면 무척 속이 상할 것입니다. 20년을 한결같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자식을 낳은 게 아니고 웬수를 낳았구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한결같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었지요. 또

예수마을 한마당

어느날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내일은 쉬어야겠다” 하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날 편안할 때만 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피곤할 때도 기도해야 한다는 성경말씀을 듣고는 “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딱 걸렸구나”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언제부터인지 찬송가를 부르거나 설교 말씀을 듣던 중에 느닷없이 눈물이 나오려 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럴때 마다 행여 누가 볼세라 숨을 삼키며 “아! 내가 갱년기구나” 그런 어느 날 어느 여 집사님이 말씀하시는걸 우연히 듣게 되었지요. 이 교회 나와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눈물이 많이 난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세례도 받고 101 제자 훈련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전에는 저는 이성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신학적 교리에 대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성적 판단으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요한 1서2장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에서, 안목의 정욕에서 또한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끊임없는 회개와 자기 성찰을 해야겠지요. 이제 한걸음 내 딛은 것에 불과 하지만 이 일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값진 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안식과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한걸음 한걸음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격려와 사랑을 주신 목사님 외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5선교회 회장님이셨던 맑은 영혼을 가지신 김중수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셨다면 아마 가장 기뻐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101제자훈련 중 솔직한 자기고백으로 저를 감동시키신 윤희주 장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로 인도해준 믿음의 선배이자 제 와이프인 권병숙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장 찬양제를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라



여기저기서 저희 이만큼 열심히 연습한다며 자랑하듯 문에 붙어있는 종이 뒤로 목장들이 모여서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찬양제가 일주일 남은 가운데 다들 바쁜 일상생활에서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 같이 노래를 맞추어 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목장들의 연습소리에 마음만 더 조급해지면서 우린 언제 연습하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찬양제 2주일 전 드디어 모였습니다. 준비해 주신 저녁을 같이 먹은 후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한 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전 상은 커녕 화합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조차 있었습

니다. 반은 포기하는 심정으로 연습에 임했는데 아마 다른 목원들도 그냥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자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들어보는 찬양이었고 특히 반음 올라가는 불확실한 음정이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두 번, 세 번, 연습이 거듭될 때마다 뭔가 벅차오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분명 누군가가 이끄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였을까요? 너무도 많은 분들이 하나 둘씩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분에 대한 사랑, 범사에 감사 등등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하나로 나타남을 깨달았습니다. 꼭 다듬어 지지 않은 진흙을 물레를 돌려가며 도자기를 빚듯 부족하지만 목원들 하나하나가 영적인 빛을 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자녀가 되듯 그렇게 화합이 되어가는 모습 속에 이번 찬양제는 상을 떠나서 제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 것 같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화합하는 듯 싶으나 교회 밖에서는 어떤 모습인지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음을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찬양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서로가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목장에서조차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목장에서 목원들 하나하나가 각각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 큰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직 한 분만을 위한 화합의 장인 목장찬양제! 해가 거듭할 수록 마음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울동과 아름다운 하모니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도 좋은 아름다운 울림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예일 새가족이 되고 나서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 선교후기 원고 마감에 이틀 남았다고 빨리 마무리 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순간 나도 “예일 새가족이 된 후의 감동을 써 보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다. 남편에게 예기 했더니 당장 쓰라고 적극적인 동감을 나타낸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쓰고 싶어도 못쓴다. 그때는 이미 새가족이 아니라 오래된 가족이 되어 있을테니... 이런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졌다.

11월 3일이면 우리 가족이 예일 가족이 된 지 정확하게 8개월이 된다. 두 번의 방문과 계속되던 기도 후에 3월 3일 등록을 했다. 사실 처녀 총각 때 부터 20년 넘게 다니던 교회를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 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않은 않았다. 특히 남편이 이미 장로라 더 힘들 거라는 지인들의 진심 어린 조언도 많이 들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꼭 적응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었다.

처음 환영송을 불러주었을 때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자꾸 눈물이 나왔다. 또 잊지 못할 인상적인 모습은 장로님들이 앞치마를 입으시고 부엌에서 봉사하는 모습이였다. 저번 교회 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이 교회 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가히 충격적 이라고 느끼면서도 ‘이제야 교회를 제대로 잘 찾아 왔구나’ 안도의 미소를 지었던것 같다.

5주 새 가족 공부를 마친 뒤 어느 토요일 저녁 파티가 있다고 하셨다. 그냥 식사하고 친교하는 정도겠지 했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목사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기대하라고 하셨다. 아! 그날 그밤의 감동은, 우리 부부가 받은 은혜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 부부들이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우리들을 환영하고 축복해 주시는데 정말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된다. 특히나 목사님의 울동 사위는 지금도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올 정도로 반전 이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열심히 부지런히 적응 해야겠다고 다짐 했다. 아니나 다를까 적응하기 싫어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교회는 행사도 많았고 바쁘게 돌아갔다. 성경도 쉬지 않고 읽어야 했고 101 제자 훈련도 마쳐야 했다. 그 와중에 가족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곳에서 받은 은혜는 크고 놀라웠다. 많은 분들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미처 알지 못했던 서로의 상처까지 드러내며 기도하는 사이가 될 수 있었다.

6개월이 지날 때 까지도 우리교회, 우리 목사님 소리가 어색하게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매달 있었던 행사 가운데 역사 하시고, 은혜 주시고 각 선교회가 한마음 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이끌어 동참하게 해 주신 5여성교회 집사님 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 때문에 망설였던 우리 가족을 예일교회로 인도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희 부부를 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목사님 이하 모든 분들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감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은빛 나무 가지 사이로 살포시 올라 앉은 하이얀 눈덩이가 새로운 세상으로 문을 엽니다. 저 쌓이는 눈덩이를 보고 있노라니 문득 아 한 해를 뒤돌아 보는 계절임을, 추위와 싸우며 빛을 발하는 흰 눈을 보며 기억을 더듬어 마음속에 차곡차곡 그림으로 담아 놓았던 감사에 그림을 하나씩 꺼내어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어졌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자주 쓰러지고 넘어진 삶의 순간들을, 값없이 은혜로 받은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처방으로 치유되어진 나의 삶을 고백해보려 합니다.

2013년 사모하는 심령에 맡겨주신 선교회 회장의 직책을 선물로 받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6월에 있었던 성경암송대회를 준비하고 있던 중 2회전 선수로 신입회원이셨던 박집사님이 대회 당일 갑작스런 일로 참석할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감당하셔서 받으신 은혜를 감사.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 1회전에 도전하셔서 준비하셨던 신입회원 집사님 대회 전 날 아들이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어 참석이 불투명해졌던 일, 다행히 사명감으로 그 시간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던 일도 감사.

성경암송대회 및 스피드퀴즈대회를 위하여 준비하였던 이 집사님 어려움으로 비록 참석은 못하였지만 끝까지 마음을 모아준 일도 감사.

교회 큰 행사인 전 교우 체육대회 및 바자회 한마음으로 묶어주셔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신 일도 감사

널싱홈 방문에도 함께하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환한 웃음의 선물도 감사

영적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귀한 일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섬겨주신 일 은혜로 감당하신 일 모두 감사입니다.

늘 부족한 저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예비해주신 집사님들 항상 스마일 퀸이라 불러주시며 큰 용기를 심어주신 집사님. 칭찬과 격려로 응원해주신 집사님. 겉으로 겸손한 척하면서도 속마음엔 교만이란 친구가 찾아와 터를 잡기 시작했나 봅니다. 일년이란 세월이 지날 무렵 한 장 남은 달력에 숫자가 힘겹게 매달려 있듯이 생활고란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무기력함으로 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고 겉으로 웃음을 잃지 않으려 포장을 하며 그 동안 버텨온 힘을 점점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부르짖는 삶이 갑자기 중심을 잃어가며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의지함을 기댄 척 하면서도 또 다른 나의 머리 속엔 내 뜻대로의 계획을 짜 맞추게 되었고 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사탄이란 두 글자는 어지러운 마음에 왔다갔다하며 핑곗거리를 만들어 합당한 이유를 찾기에 이르렀고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 시행하리라 결정하고 선교회 총회가 있는 그날까지 웃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부터 끝을 알 수 없는 세상에 돌아가리라. 찬양대로 섬기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기쁨이었던 나의 마음까지 유대인 동네이므로 성탄절 날 가게 오픈 해야지 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크리스마스 칸타타 연습에 불참하는 일도 하게 되었고, 그 동안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로 성령충만 함으로의 섬김은 어디로 가고 한 순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마을 한마당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부흥성회가 열리는 그날도 기대하는 마음도 없었고 나오는 거리감을 두며 나오는 상관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의 목마름을 모르는 남편은 저녁에 전도사님께서 픽업오시기로 했다며 시간 맞추어 오라고 했지만 못들은 척 물음을 뒷전으로 한 채 출근을 했고 부흥회엔 참석하지 않으리라.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온 나에게 전도사님 오실 시간이 되었다며 채근하는 바람에 집을 나서게 되었고 당신은 뭐가 그리 좋아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다 참석하려 하느냐는 물음에 집에 있으면 세상이 주는 걱정밖에 없지만 그 시간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오면 좋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늘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남편의 그 말에 집을 나서게 되었고 환한 미소와 밝은 빛을 뿜어 내시는 조태성 전도사님, 온유하신 사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항상 우리 부부를 이끌어주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시는 분들로 인하여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전도사님 내외가 픽업해주시지 않았더라면 나의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첫날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동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더 큰 은혜와 성령충만으로 셋째 날 저녁집회를 기다리게 되었고 셋째 날 갑절의 영감으로 완전 회복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속으로 부르짖던 그날 주님은 묵묵히 나의 불평을 다 들으시고 다시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이 철없는 것 언제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하시며 기다려주십니다.

오늘 아침도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스마일을 그려봅니다. 나의 신앙관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가오는 2014년 힘차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활짝 웃어봅니다. 선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Baton 이어가기



삶을 살다 보면 물론이려니와 운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 들을 만날수있다.

몇 해 전 겨울이었다. 눈이 많이 온 다음날 직장에 가기 위해 눈길을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거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커브를 돌다 그만 조그만 웅덩이에 빠져 차가 꼼짝달싹 할 수가 없게 되었다. Accelerator를 조금씩 밟아 보았으나 헛 바퀴만 돌 뿐이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때 차 뒤쪽 건너편 Bus stop에서 Bus를 기다리고 있던 남자 셋이 달려와 내 차를 빼내려 밀고 또 밀며 애를 써 주었던만 안타깝게도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직장 동료인 Jason 이 큰 삽 을 들고 오는것 이아닌가? Jason 이 삽으로 앞 바퀴

앞의 눈을 한참 퍼낸 후 운전을 앞뒤로 하니까 차가 마침내 웅덩이에서 빠져 나왔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Jason 은 그후 police officer가되어 지금은 Manhattan 에서 New York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Bus 를 기다리다 선뜻 달려와 도와 주려 애썼던 그 세분 들에겐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감사의 표현도 하지 못했다. 나를 돕는 동안 기다리던 Bus는 아마 놓쳤으리라, 그래서 학교나 직장에 늦었으리라... 안타까움과 고마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Bus 정거장을 바라보며 그 분 들을 찾아보았으나 물론 보이지 않았다. 사실 얼굴도 기억나지 않고 이름은 더 더욱 모르지 않는가? 그들은 누구였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나를 돕게 했을까?

내가 살아가며 다른 이 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 어찌 이뿐이라. 이름도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도와 주고 간 그분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 순수한 도움, 베품의baton을 내가 그분들께 갚을 길이 없다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baton을 건네 갚을수 있으리라.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과 사람을 변함없이 이어주는 끈은 따뜻함, 소박함 그리고 진실함이 아닌가. "No problem!" 감사의 표현을 받은 후 Jason 그가 한 말 의 전부였다.

이미 주님으로부터 크고도 넓고, 깊은 사랑을 받고 입은 나,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야 됨이 지극히 당연 하다는 생각이든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동사형 Christian이 되어 건네 받은 이 사랑의 Baton 을 이어가며 거뜬히 살아내길 기도드린다





조국 (祖國)



한국전 참전용사 대표의 인사

무더위 속에서 8월 15일 광복절이 지났다. 예년과 같이 광복절을 고비로 아침 저녁 선들바람이 불어와서 가을이 다가옴을 예감케 한다. 추석을 맞으면서 휘영청 밝은 달빛에 귀뚜라미 울어대면 애수와 고독이 촉촉하게 젖어와서 가을 병은 삭도바람같이 가슴을 아리게 한다. 그 맑은 가을 밤은 추석 정취와 함께 그리움으로 고국을 사무치게 한다.

정전 60주년을 맞은 금년, 교회에선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초청해서 예배도 드렸고, 치하도 드렸다. 또 교회 복도에 붙여 놓은 한국전쟁 당시의 한국인, 전쟁의 사진은 시공을 뛰어넘은 경이로 그 시절을 되돌아 보며 뼈저리게 아픈 감회로 다가왔다.

쌩-쌩-, 광-광-, 공포의 대포소리, 붉은 병사들이 얼마나 무섭고, 배고팠던 공산치하였던가. 불바다 속 시가지에 널려있는 시체들, 아우성치며 도망가는 피난민, 머리에 짐을 이고, 등에 애 업고 울망줄망 애들 손잡고 가는 엄마, 소 달구지 끌고 가는 아버지, 미군 병사가 탄 짐차가 다가오면 손 내밀고 밀려오는 아이들. 없는 빈곤과 전화로 황폐해서 지금과는 천지지만 만큼의 세월, 물질의, 문화의 차이를 드러냈다. 누가 감히 오늘날과 같은 지금을 상상이나 해 볼 수 있었을까. 그 전쟁와중을 지나온 노년들은 그리움과 애달픔으로 사진을 바라봤지만, 청소년들에게 역사로서 조국을 꼭 보게 했으면 좋겠다.

조국(祖國)이 무엇입니까?

조상적부터 살던 나라. 본국 국민이 갈려 나온 본디의 나라. 우리의 핏줄 모국이 아니겠어요. 이민 와서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이 조국이듯, 우리의 조국은 한국이지요. 성경통독 중에 문득 이 구절과 맞닥뜨려 조국을 그리게 되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 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यो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5 - 13절 말씀이다.

조국을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화살이 되었다. 우리 교포는 유학을 왔다가, 회사 지점에 근무하러 왔다가 눌러 앉은 사람,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자녀교육을 위해, 이민 온 사람, 개개인의 이민 온 상황은 다르지만, 이곳 미국땅에 사는 우리동포를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우리도 이곳에서 텃밭을 만들고 뿌리를 박으며, 그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하며, 이 나라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협력하며 살 때에 우리도 이 나라도 평안과 함께 두터운 신뢰는 쌓여서 함께 번영해 나아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 친정의 번영이 더해지고, 훌륭한 나라로 우뚝 설 때에 이 민족들이 아무도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우리의 입지 또한 든든해 질 것이다.

예수마을 한마당



한국전 참전용사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



예배후 성도들과의 만찬

우리 조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끼어있어 예부터 무수한 침략으로 점철되어 끊임없는 고난을 겪어왔다. 그런 우리 민족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어디 어떤 나라를 가던지 교회부터 세우게 하시고, 특별한 축복으로 지금의 IT 강국으로 일으켜 세워주셨다. 조국이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두터운 축복은 만리장성과 같은 기도와 감사를 올려도 부족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바벨론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민 교포에게 내려주신 축복과 깊은 뜻을 헤아려서 감사, 감사기도를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결실의 가을, 추석달밤을 만나면서 나를 돌아보며 다시금 조국, 우리 동포에게 있어 조국은? 하고 읊어보게 되었다.

우리 민족에게 이민 교포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은혜, 축복에 또 다시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빈혈에 대한 이해



빈혈은 피에 건강한 적혈구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몸의 증상입니다. 적혈구는 신체 기관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일을 합니다. 빈혈은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려 있는 흔한 질병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약 3백 5십만 명이 현재 빈혈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빈혈은 어떤 때는 정도가 약해서 쉽게 치유되기도 하지만 약한 정도에서 심각한 정도까지 분류하기도 합니다. 어떤 빈혈은 장기적이기도 하며 빈혈인지 모르는 상태로 방치해 두어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되기도 합니다.

1) 빈혈의 종류

심장, 폐, 혈액에 관한 국립건강 연구소에 의하면 빈혈의 종류는 4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빈혈의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 *혈액의 손실로 인한 빈혈
- *적혈구가 감소하거나 적혈구 생산에 결함이 있는 경우
- *적혈구 파괴로 인한 빈혈

2) 빈혈의 위험요소

누구나 빈혈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빈혈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요인입니다.

- *일상의 식생활에서 철분, Vitamin B12, 엽산(Folic acid)이 부족한 경우
- *영양분 흡수에 장애가 있는 장의 병(예를들면 크론병, 소아지방병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
- *생리로 혈액이 손실되는 경우
- *임신
- *암, 신부전증, 간부전증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능성이 높음) 왜냐하면 적혈구 감소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 *경상 적혈구 빈혈 같은 유전성 빈혈의 가족 병력이 있는 경우
- *감염 질병, 혈액 관련이나 질병이나 자가 면역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 *독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
- *적혈구 생산에 영향을 끼쳐 빈혈을 일으키는 약을 복용한 경우

3) 발병요인

(1) 철분결핍의 빈혈 : 골수에서 헤모글로빈을 생성하는데 철분이 필요합니다.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에 있는 단백질분자입니다. 충분한 철분이 없으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2) 비타민 부족의 빈혈 : 식생활에서 Folic acid, Vitamin B12와 다른 중요영양소가 부족하면 빈혈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한 적혈구를 생산하려면 Folic acid와 Vitamin B12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음식으로 충분한 B12를 섭취하지만 흡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만성질환에서 오는 빈혈 :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류마티스, 관절염 그 외의 염증성 만성질환이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적혈구 생성을 방해하여 만성빈혈을 일으킵니다. 신부전증이 있는 사람은 빈혈이 생길 위험이 많습니다.

(4) 재생불량성빈혈 : 아주 드물게 생기는 경우지만 생명의 위험까지도 초래하는 빈혈로써 골수의 적혈구 생성능력이 저하되어 생기는 빈혈이다.

(5) 용혈성 빈혈(체내 적혈구의 파괴로 생기는 빈혈) : 골수에서 생겨 나는 적혈구보다 파괴되는 적혈구가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에 생기는 빈혈이다. 유전되기도 하고 생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예수마을 한마당

(6)경상적혈구 빈혈 : 신체가 낫모양의 적혈구를 생산해 내는 유전적인 질환이다. 불규칙하게 생긴 낫 모양의 적혈구는 정상보다 일찍 죽기 때문에 만성적인 적혈구 부족을 초래한다.

(7)골수와 관련된 빈혈 : 백혈병 같은 병이 원인이다. 백혈병은 골수와 적혈구 생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빈혈을 일으킨다. 이런 종류의 암이나 암 같은 질병이 혈액생성에 주는 영향은 이미 할때도 있지만 심하게는 혈액생성의 진행을 완전히 정지시켜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되기도 한다. 이외에 다른 혈액암이나 골수암 예를들면 다발성 골수증과 림프종이 빈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연 령	수치기준
6개월 ~ 6세 미만	11 g/dL
6 ~ 16세 사이	12 g/dL
성인 남성	13 g/dL
성인 여성	12 g/dL
임산부	11 g/dL

5)징후나 증세

빈혈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빈혈이 악화됨에 따라 증세가 심해진다. 아무런 증세가 없을때는 정기적인 혈액검사로 발견 되기도 한다.

빈혈과 관련된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극심한 피로, 피로감, 숨가쁨, 어지러움, 아찔한 증세, 두통, 손발이 차게 느껴짐, 창백한 피부, 가끔씩 가슴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심장이 두근거릴때도 있다.

6)빈혈을 진단하는 방법

담당의사로 부터 증세를 물어보고 건강진단을 한 후 CBC(완전혈구측정)이라는 혈액검사를 할것입니다. 이것은 혈액안에 있는 여러 종류의 세포를 검사하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빈혈인지 결정하기 위해 다른 검사를 더 할것입니다.

7)치료

치료방법에는 먹는음식을 바꾸는것도 있고 철분, Folic acid, 비타민 B12등 약을 복용하는 방법도 있고 수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합병증을 방지할 수 있는 치료방법을 찾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빈혈치료와 진행상태를 특정, 감시하기 위해 정기적인 의사방문하는 스케줄을 만드십시오.

8)빈혈예방

많은 종류의 빈혈은 예방할 수 없지만 철분결핍성 빈혈이나 비타민 결핍성 빈혈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함으로써 빈혈 위험을 감소될 수 있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소고기와 검푸른 잎사귀의 채소) Vitamin B12가 풍부한 음식(고기와 유제품), Folic acid가 풍부한 음식(감귤류와 검푸른 잎사귀의 채소)을 드십시오.

빈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HEMATOLOGY.ORG/PATIENTS/BLOOD-DISORRERS/ANEMIA/5225.ASPX

종합비타민 복용을 위하여는 의사나 약사에게 상의하고 복용하십시오.

다른 질병이 있거나 현재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어떤 것을 복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상의해야 합니다.



사회연금 설명

Social Security 에 관한 좋은 자료를 얻게 되어 여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는 본인의 생일 즈음에 일년에 한번 씩 Statement같이 정부에서 메일로 보내 주었지만 나라의 재정 문제로 중단 되었습니다. 대체된 방법으로 본인의 구좌를 컴퓨터에 한번 만들면 그 후에는 수시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따라 하셔서 본인의 구좌를 만들어 보세요. 한국 분들은 대체로 세금보고를 많이 하시지 않으시고 일한 기간이 짧으셔서 자격이 되실 때에 월 평균 약 \$ 750 정도 수령 하십니다. 물론 세금보고 하신 금액에 따라 차이도 나지만 언제 수령 하시나에 따라서도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타시는 나이는 62-66세에 타시기 시작하는데 62세에 타시는 것은 조기에 당겨 타시는 것이라 본인의 수령액에 75% 밖에 못 타시는 것이고 일년 씩 늦추어 타시면 일년에 8%씩 더 받으셔서 최고 132 % 까지 타십니다. 소문에 나라의 재정이 고갈 되어 빨리 타야 한다고 미리 당겨서 타시는데 지금 타시는 금액은 지금 젊은 분들이 내는 세금에서 타시는 것이라 베이비 붐머 세대가 지난 후까지 다 받으시고 아마 40대부터 조금씩 금액이 줄거나 은퇴나이가 뒤로 밀려지겠지요.

밑에 보여드리는 자료는 정부에서 발행한 자료를 각 나라말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많이 참고 하셔서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몇 년 후에 은퇴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말은 은퇴하실 때까지 계속 그 정도의 세금을 내셔야 가능하지 중간에 세금을 더 내지 않으시면 약정금액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세금을 오랜 기간 많이 납부 하셔셔도 약 \$ 2600 정도가 상한선입니다. 이 연금은 어디까지나 생활 보조이지 내 은퇴생활을 다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본인의 건강, 형편 등을 생각하셔서 수급시기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온라인 등록 방법

10 Easy Steps to Make Your Social Security Account Online

1. Go to www.socialsecurity.gov or www.ssa.gov
2. Click on this link located on the left column: **1 Step! Get your Social Security Statement Online**
3. Click on **Sign In or Create an Account** and then click on **Create An Account**
4. Check the box to agree: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and click next.
5. Input your personal information (e.g. name, SSN, DOB, address, & phone #) **Verify your identity**
6. Answer personal financial questions to verify your identity (e.g. questions regarding your loans, previous employer, or your bank/credit card) **Secure your identity**
7. Create a username & password, select security questions and answers. **Create your Account**
8. Once you have successfully signed up, you will see the following message: **You successfully created an account. We may sign in any time with your username and password to access our online services.**
9. To sign in, click on the box to agree with the terms of service: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10. Once you have logged in, you may print or save your Social Security statement: **Print / Save Your Full Statement. Get a copy of your Statement information in a convenient, print-friendly format.**

Visit www.socialsecurity.gov for more information on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 Information is also available in a number of different languages: www.socialsecurity.gov/in/foreign



장학기금 골프 대회를 돌아보며...

저는 한국에서부터 치기 시작한 골프가 어느덧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유일한 취미이자 그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 나의 전부인 이상과도 같았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매주 일요일은 골프장으로 자동 "Go" 하며 가족은 저버려두고 나만의 주일을 즐기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믿음 없이 교회를 다녔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그것조차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놓지 않으시고 지켜 보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골프장에 있던 저를 말로 표현 못할 꿀맛보다 더 좋은 "예일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했던 것, 내가 즐기던 것을 내려 놓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 주시는 꿈을 갖고 감사히 신앙 생활하게 해주심 또한 감사 거듭 감사 드립니다.

그런 후 어느덧 우리 예일 교회에서 신앙 생활 한지 6년이 흘렀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치러지는 장학 기금 골프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치르는 골프 대회라 시행착오도 있었고 힘든 준비과정도 있었지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Guest 분들의 기도로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저도 모처럼 참가해 나의 실력을 좀 뽐내볼까 할 때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여러분! 정말 물고기가 물을 만났는데도 헤엄쳐 넓은 곳으로 헤엄치지 못하고 그 자리만 뱅뱅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없이 진행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7th 파 3홀에서 진행을 보게 되었고 약하게 보슬비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내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순간 나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며 주님 음성이 "네가 여기 온 이유가 너의 골프 잘 치는 자랑의 무대이냐? 아니면 장학 기금을 거두어 정말 필요할 때 요긴하게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금 대회이냐?" 그 순간 정신이 바짝 들어 저는 정신 없이 이 홀에 걸린 Extra Money를 땀나도록 왔다갔다하며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무사히 치러졌고 첫 대회치곤 큰 실수 없이 63명의 참가자와 \$6,500의 값진 장학기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금으로 1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500씩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2012년에는 2 회 골프대회가 열렸고 안 좋은 날씨로 인하여 신청인보다 적은 수 만이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Guest분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덕분에 30인 비록 적은 수였지만 \$2,600의 값진 모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함을 금할 길 없었고 담임 목사님의 기도해 주심과 작은 시상식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장학기금 대회를 주님의 은혜로 감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대회를 치르면서 "골프"든지 어떤 종류의 장학기금 모금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작던 크던 뜻과 정성을 모은다면 주님이 더 좋은 일에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 골프대회를 위해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함을 글로라도 표현하고자 여러분들의 수고와 사랑이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주님이 돌보시고 복 주시고 열어주실 것을 확실히 바라보며... 아멘...

예수마을 한마당

임호준 (청년부)

은혜가 넘치는 우리교회 예일교회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너무도 부족한 저에게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예일장로교회에 속하여 이렇게 글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일장로교회 청년부에 속해 있는 임호준 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온지는 2년 되었고 미국땅을 밟기 전에 서울시 성북구에 장위동이란 곳에 살았으며, 그곳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0년 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는 미국에 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곳 예일장로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수도 없이 많은 교회 중에 예일장로교회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은 한국에서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다녔던 사랑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서는 대한민국의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지금도 전국방방 곳곳을 다니시며 나라 살리기 운동을 총대 메고 주도해 나가십니다. 마치 어린 소년 다윗이 겁도 없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뛰어 덤벼든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가듯 대한민국의 악한 세력들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매일매일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악한 세력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날마다 받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담임 목사님 밑에서 10년 동안 많은 교역자들을 통하여 훈련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인도하심 끝에 이곳 아주 은혜 넘치는 예일장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 부목사님의 기도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무슨 목적으로 가던지 미국에 가서도 반드시 성령충만하고 좋은 교회로 인도해달라는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주신 교회가 이곳 예일장로교회 인줄 믿고 너무도 감사 드립니다.

예일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한지도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이곳에서 받았던 너무도 큰 은혜도 있고 추억도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받았던 은혜를 잠시나마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1년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일장로교회에 오자마자 처음부터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와서 처음 교회 왔을 때는 제가 10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교회 분위기와 너무 다르고, 이곳에서의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컸기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청년부가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기에 그 적응 기간이 대략 2~3개월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라이드 때문이었죠. 대한민국에서는 대중교통이 워낙 잘 발달되어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기에 별것 아닌 문제가 여기서는 별것 아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주매주 주일날만 되면 자기 기름값 투자해 가면서 라이드 해주시는 강희장님과 몇몇 분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라이드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나에게 은혜 받게 해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에 너무도 감사했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김종훈 담임목사님의 말씀에도 큰 은혜를 받고 만나는 지체들마다 반갑게 맞아주고 그런 사랑의 교제 속에 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지금은 예일장로교회가 제게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장소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모든 성도님들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 동안 교회 행사가 적지 않게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성경암송 대회가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고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암기했던 말씀들이 필요에 따라서 제 삶 가운데 얼마나 도움이 되던지... 성경암송 대회가 끝난 지금 말씀구절이 다시 잊혀져서 바로 떠오르지 않기도 하지만 제 핸드폰 메모장에 기록해 두었다가 필요한 말씀구절이 생각날 때 다시금 말씀 구절을 보곤 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경험해본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언제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으나 만일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 간다면 저는 예일장로교회를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성령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분명히 있다고 그곳이 바로 예일장로교회 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제 입술가운데 전해질 겁니다. 현재 담임목사님을 비롯하여 청년부를 사랑으로 이끌어가시는 신경호 전도사님, 물질로써 자신의 것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청년부를 중심으로 섬겨주시는 정수영 장로님, 그리고 청년부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이런 귀한 인연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모든 예일장로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지루하지만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수 감사절

추악한 인생 속에 찾아 오셔서
수치와 조롱 죽음까지 당하셨네
감사를 드리고 드린들 끝이 있을까
사람 사랑에 목마르신 주님
절망의 늪 그 곳에도 서 계시네

서현숙
사모

추억을 간직한 손 때문은 성경책
수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감동으로 가슴속에 다가와 머무네
사명과 사랑으로 뭉쳐진 예일의 가족들이
절기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네

강문구
집사

추수 후의 텅 빈 논과 밭처럼
수습할 수 없이 엉망인 나에게
감사하게 예수님 나를 부르시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로 오너라
절대자의 사랑으로 날 구원하셨네

강제인
집사

편집을 마치고...

먼저 창립 20주년 기념 예수마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분들 글 하나 하나에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시는 것을 느끼고 예일 교회에 얼마나
감사가 풍성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 욕심이 워낙 많아 절대 쉬운 일이 아닐거라고 알고
시작은 했지만 편집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동안
15권째 작업하신 출판부에 선배님들의 경력과 노하우에
존경을 표현합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위원장 한기하 장로님과
자료를 편집이 수월하게 일일이 준비정리 해주신 부장
박성우 집사님과 강호정 총무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훌륭한 자료와 사진에는 임미라 집사님, 김건아
집사님, 신동인 집사님, 권철훈 집사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또한, 교정을 봐주신 조유경 사모님, 김근태 장로님, 김영애
집사님과 최양미 집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를 보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처음으로 인한 부족한 편집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진유정



창립 20주년 기념 예수마을 통권 15호

발행인: 김종훈 담임목사
발행일: 2014년 3월 28일
발행처: 뉴욕예일장로교회 출판부

위원장: 한기하 장로
부 장: 박성우 집사
총 무: 강호정 집사

자 료: 임미라 집사
김건아 집사
사 진: 신동인 집사
권철훈 집사

교 정: 조유경 사모
김근태 장로
김영애 집사
최양미 집사

편 집: 진유정 자매